

농식품 해외시장동향('10.12월)

2011. 1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마케팅처 식품수출정보팀

- 목 차 -

- 일본(도쿄 aT)-----	3
- 중국(베이징 aT)-----	14
- 미국(뉴욕 aT)-----	22
- 홍콩(홍콩 aT)-----	37
- 동남아(싱가포르 aT)-----	50

해외시장동향	일본	도쿄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중국산 신선야채 수입 77% 증가 (연간 50만 톤 초과예상)

- 일본농수성이 이번 달 15일까지 정리한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11월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신선야채의 수량은 전년 동기를 77% 상회하는 2만7,809톤을 기록. 기후불순으로 일본산의 출하가 적었기 때문임. 가공을 포함한 금년 중국산 야채 수입량은 1~11월 누계가 46만 톤으로 전년대비 28%증가해 연간 50만톤을 넘을 전망
- 품목별로는 양배추가 약 2,800톤으로 전년의 75배로 급증하였고 양파는 2.1배인 8,600톤, 당근은 16배인 4,500톤, 생강은 40% 증가한 810톤, 파는 30% 증가한 4,700톤으로 나타남
- 가공(깍질 벗긴 것·커트)과 냉동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총량은 전년을 48% 상회한 4만9,000톤. 가공은 30% 증가한 1만 5,000톤으로 이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양파는 30% 증가함. 마늘은 7%증가 냉동마늘은 5%증가한 6,400톤임.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12.16일자

□ 돼지지육 연말 상승세 계속 (닭고기 대체수요 영향)

- 연말 판매에 들어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을 상회, 오름세를 보임. 12월16일의 도쿄 시장가격(상등품)은 9월 이후 1kg에 500엔대를 보임. 돼지고기 출하량이 적고 닭고기 대체수요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식육시장의 상등품 평균가격은 16일, 1kg 505엔으로 전일대비 20엔 상승, 전년대비로는 26% 상승함. 4월에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가세하여 여름의 기록적인 무더위의 영향이 겹쳐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출하가 줄어들어 높은 가격을 유지함. 12월16일은 연말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하고 연내까지는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도매시장은 출하량을 생각하면 더 오를 것으로 전망. 슈퍼의 가격인하 경쟁도 영향을 주고 있음. 양돈농가도 판매두수가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여도 생산자의 수입은 증가가 아니라고 언급(관동의 JA)
- 총무성의 가계소비에 의하면 금년 1세대당의 지출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함. 여름엔 슈퍼마켓의 돼지삼겹살육 판매촉진으로 높은 시세에 영향을 줌

- 출하량 회복은 아직 미지수로 1~11월까지의 돼지의 전국 도축수는 전년대비 1.2%감소한 1520만 8788마리. 9~11월은 전년대비 5.6%감소로 특히 가을이후의 감소폭이 큼. 농수성의 육돈생산 출하예측에 의하면 미야자키현을 제외한 12월의 출하두수는 전년대비 3%감소한 139만1000마리로 예상
- 닭고기는 크리스마스, 연말 판매경쟁이 피크이며 금년 무더위의 영향으로 일본산 닭고기 품귀로 「닭고기로부터 돼지고기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음
- “돼지고기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요인도 없고 상승세로 연내는 1kg에 500엔대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 내년에 대해서도 「금년 여름의 더위로 수태율이 나쁘기 때문에 출하는 상당히 줄어 들 것 같다」 (큐슈의 JA)고 전함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12.17일자

□ 야채 연말수요 본격화로 가격상승세 /도쿄·오타시장

- 도쿄 오타시장에서 이번주 12월20일, 야채가격이 상승세를 보임. 연말 판매경쟁 실현에 들어가 거래 문의가 많아진 탓. 크리스마스 수요가 많은 써니양상추나 미니토마토, 연말상재인 연근, 파, 삼엽초나 토물류가 상승하고 있음. 예년이라면 중순경부터 본격화하는 연말수요가 금년은 가을이후 고가가 계속되어 하순부터 본격화됨. 향후, 채소류 전체는 예년과 동수준의 가격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도쿄·오타시장에서는 같은 날, 아이치산 써니양상추(5kg L급) 상품가격이 1,785엔으로 전일보다 210엔 상승, 치바산 미니토마토(200g AM급) 상품가격이 137엔으로 11엔 상승
- 지금까지 공급이 많았던 시금치도 입하가 줄어 시세가 오르기는 하였지만 활발한 거래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임. 시장관계자는 특히 양채류는 크리스마스에 얹힌 주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편이라고 언급
- 정월상재는 출하가 적은 토물류 가격이 높음. 토란은 사이타마산 1케이스(10kg 2L급) 상품가격이 6,825엔으로 전일대비 525엔 상승하였고 미야자키산의 경우(10kg AL급)는 4,200엔으로 525엔 상승함. 모두 전년보다 30%, 40% 상승하였고 「여름철 무더위의 영향으로 제품부족 때문에 향후도 예년보다 상승폭이 크다」고 전망
- 한편, 무 등 무거운 야채는 보합세. 지금까지 매장가격이 높은 편이었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어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예년보다 둔감」 (도매회사) 전망

자료원: 일본농업신문12.21일자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2010년 10월)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합계			전년 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야채 총계	707,990	154,181,437	218	88	137
무	83,947	7,958,925	95	87	179
당근	46,677	6,865,091	147	92	130
배추	77,934	6,534,979	84	93	179
양배추	84,063	8,707,563	104	86	170
시금치	8,347	4,475,985	536	94	108
파	23,680	9,227,616	390	91	130
부추	3,917	2,148,214	548	98	122
아스파라거스	1,142	930,129	815	94	105
(수입산)	829	619,300	747	102	102
브로콜리	8,577	3,006,566	351	65	142
(수입산)	2,302	673,964	293	157	114
양상추	33,311	8,152,374	245	79	288
오이	28,580	8,696,463	304	89	139
단호박	19,110	2,355,367	123	102	89
(수입산)	119	12,766	108	505	61
가지	17,363	4,081,927	235	115	98
토마토	21,907	10,367,600	473	67	185
미니토마토	4,526	4,223,942	933	71	193
피망	8,738	3,660,874	419	87	164
파리고추	615	573,227	932	102	107
풋콩	877	582,662	664	88	108
감자	46,157	6,698,268	145	91	133
양파	71,742	9,324,320	130	87	134
(수입산)	5,701	445,320	78	169	104
마늘	1,353	960,014	709	82	147
(수입산)	749	240,910	322	82	182
표고버섯	4,662	3,973,632	852	98	92
(수입산)	161	65,755	409	94	113
팽이버섯	8,611	2,714,815	315	86	125
(수입산 야채총계)	16,168	5,582,458	345	136	83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2010년 10월)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 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 총계	243,881	63,804,390	262	80	134
국산과실 합계	188,238	54,651,412	290	77	142
밀감	59,420	11,556,453	194	70	138
기타 밀감	1,122	521,870	465	70	158
사과 합계	42,166	11,290,064	268	80	137
(츠가루)	6,174	1,560,227	253	75	177
(조나골드)	3,601	916,007	254	46	140
(후지)	10,346	3,032,632	293	94	129
일본 배 합계	25,381	6,246,807	246	119	120
(행수)	74	21,483	290	89	144
(풍수)	9,329	2,181,294	234	399	112
(이십세기)	1,344	316,899	236	113	154
(신고)	9,216	2,167,943	235	82	122
감 합계	32,643	10,144,050	311	60	174
(단감)	5,795	1,836,456	317	40	165
(땡감)	26,848	8,307,594	309	68	178
복숭아	246	114,359	466	252	118
포도 합계	10,828	7,892,716	729	85	134
(거봉)	4,297	3,335,936	776	73	143
밤	4,407	1,614,594	366	205	87
딸기	108	255,284	2,367	59	120
메론 합계	5,271	2,197,959	417	85	112
(온실 메론)	2,607	1,266,154	486	95	110
(안데스 메론)	127	35,457	278	85	97
수박	970	202,157	208	74	134
수입과실 합계	55,643	9,152,978	164	92	104
(바나나)	37,211	4,452,919	120	92	97
(오렌지)	3,387	669,558	198	111	120
(수입키위)	2,392	985,360	412	92	96
(수입멜론)	1,170	160,076	137	157	99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10년 1-10월농림수산물 수입액 : 5조8,837억엔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
 - 국가전체 수입액(49조9,691억 엔)의 약 11.8%점유
 - 비중별: 농산물(2조9958억엔, 50.9%) > 수산물(1조1045억엔, 18.8%)
축산물(1조207억엔, 17.3%) > 임산물(7601억엔, 12.9%) 순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10년1-10월		전년 동기 대비	2009년1-10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49,969,109,909	-	19.0	42,007,323,337
농림수산물	5,883,778,100	100.0	5.6	5,570,169,151
농 산 물	2,995,872,591	50.9	4.5	2,868,160,469
축 산 물	1,020,780,785	17.3	6.4	959,638,596
임 산 물	760,161,583	12.9	12.6	674,916,072
수 산 물	1,104,570,480	18.8	3.7	1,065,669,725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 무역통계

□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동향(1~10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10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동 기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91,450	24,996	265.9	미국	70,257	한국	21,193	-	-
멜론	2,554,422	2,411,429	5.9	멕시코	1,705,650	미국	603,004	한국	212,044
밤	2,213,222	2,809,572	-21.2	중국	1,182,623	한국	1,021,975	이탈리아	8,624
키위	20,356,314	18,838,792	8.1	뉴질랜드	20,153,434	칠레	202,605	한국	275
딸기	2,113,839	2,311,446	-8.5	미국	1,932,948	한국	180,504	핀란드	387
매실(조제품)	2,362,003	1,978,028	19.4	중국	2,351,730	대만	7,389	한국	2,884
토마토	898,452	478,140	87.9	한국	237,527	멕시코	226,958	미국	223,446
마늘	2,900,583	1,608,918	80.3	중국	2,850,310	미국	21,517	한국	15,846
파	3,791,080	2,732,452	38.7	중국	3,785,928	한국	5,152	-	-
결구양배추	606,543	461,215	31.5	중국	395,764	한국	145,155	대만	64,588
기타유채속	64,952	52,893	22.8	중국	60,064	한국	2,224	뉴질랜드	1,960
오이	4,661	7,592	-38.6	한국	4,661	-	-	-	-
가지	9,482	45,206	-79.0	한국	9,482	-	-	-	-
송이버섯	5,569,201	5,807,451	-4.1	중국	4,328,302	한국	462,682	미국	451,365
기타버섯	187,264	134,624	39.1	이탈리아	46,532	한국	43,263	프랑스	41,979
피망	8,066,557	7,064,490	14.2	한국	4,485,260	네덜란드	2,268,442	뉴질랜드	1,305,827
파프리카	7,844,580	6,913,484	13.5	한국	4,267,691	네덜란드	2,265,459	뉴질랜드	1,304,402
건표고	5,332,835	4,358,242	22.4	중국	5,154,967	한국	170,519	홍콩	6,526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10년도 10월) 수입액

- '10년도 1-10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49조9691억 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5조 8,837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1.8% 점유,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 야채수입 전체동향

- 2010년 10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15%인 200,144톤으로 나타남. 종류별로는 「신선야채」가 동 167%인 73,659톤, 「냉동야채」는 동101%인 65,101톤, 「염장 등 야채」는 동97%인 9,010톤, 「건조야채」는 동85%인 3,123톤, 「초 조제야채」는 동101%인 2,531톤, 「토마토가공품」은 동83%인 12,744톤, 「기타 조제야채」는 동96%인 32,660톤, 「기타」는 동85%인 1,318톤으로 나타남. 신선야채로 전년동월을 대폭 상회하였으나 많은 부류에서 전년동월 수준 또는 전년동월을 하락

□ 신선야채 수입동향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호박이 전년동월비 1,383%인 1,664톤, 결구 양배추가 동 687%인 2,395톤, 결구 양상추가 동 508%인 710톤, 브로콜리가 동 226%인 5,026톤, 당근 및 순무가 동 216%인 7,754톤, 파가 동 189%인 5,407톤, 양파가 동 166%인 32,896톤 등으로 나타남
- 양배추의 국내 수급동향은 주산지인 이와테현, 관동산이 고온 등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성장하지 못하여 가격은 전년을 상회함에 따라 결구 양배추의 수입량은 전년동월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결구 양배추의 10월 수입국을 보면 중국뿐임
- 양파는 주산지의 홋카이도 산이 고온과 다우의 영향에 의해 생육이 늦어 코다마 경향이 되어 입하량은 성장하지 않았다. 가격은 비쌌던 전년동월을 한층 더 웃돌을 것으로 전망, 수입량은 16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을 웃돌음. 양파의 수입국을 보면 제1위는 중국에서 24,620톤, 제2위는 미국에서 8,277톤이었음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된 품목에서는 마늘이 전년동월 비 90%인 1,441톤, 생강이 동 91%인 1,266톤, 토마토가 동 93%인 263톤 등으로 나타남

□ 냉동야채 등의 동향

- 수입량이 증가한 주된 품목은 풋콩이 전년동월비 128%인 4,286톤, 딸기가 동 128%인 2,501톤, 감자가 동 110%인 26,960톤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된 품목은 우영이 전년동월비 55%인 498톤, 시금치 등이 동 81%인 1,620톤, 토란이 동 86%인 3,029톤 등으로 나타남

- 그 외 부류에서는 생강이 전년동월비 109%인 1,104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원: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농야채 수급부 조사 정보부

□ 토마토의 수입동향

- 10월까지의 수입액은 8억98백만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87.9% 늘어남.
-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26.4%), 멕시코(25.3%), 미국(24.9%)으로 나타남
 - 작년도 상반기는 잔류농약 검출로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수입회복
 - 한국산 토마토는 대부분 신선형태로 수입되며, 국내입하량부족으로 수입증가경향
 - 수입실적 : ('09.1~10) : 192,280천엔 → ('10.동기) : 237,527천엔(23.5% ↑)

□ 가지의 수입동향

- 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10월까지의 수입금액은 9.45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79.0% 감소하였음
 - 한국산 가지는 일본의 안전성강화, 일본의 야채 소비량 감소에 등으로 점진적으로 수입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10) : 45,206천엔 → ('10.동기) : 8,581천엔(81.0% ↓)

□ 파프리카 수입동향

- 10월까지의 수입액은 78억45백만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음
-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54.4%, 네덜란드가 28.8%, 뉴질랜드16.6%로 나타남
 - 한국산 파프리카는 하반기는 단가회복 등으로 상승세였으나 상반기의 하락세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3%의 하락을 보임
 - 수입실적 : ('09.1~10) : 4,325백만엔 → ('10.동기) : 4,267백만엔(1.3% ↓)

□ 딸기 수입동향

- 10월까지의 수입액은 21억13백만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하였음
- 주요수입국은 미국이 91.4%, 한국이 8.5%로 나타남
 - 한국산 신선딸기는 주로 케익 장식용, 후식용으로 사용되나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입하락
 - 수입실적 : ('09.1~10) : 327,387천엔 → ('10.동기) : 180,504천엔(44.9% ↓)

□ 결구양배추

- 10월까지의 수입액은 606백만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31.5% 증가하였음
- 주 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65.2%, 한국이 23.9%, 대만이 10.6%로 나타남
- 한국산 수입실적 : ('09.1~10) : 167,329천엔 → ('10.동기) : 145,155천엔(13.2%↓)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10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9월 누계	전년동기	전년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113,099,245	106,258,822	6.4	태국	60,939,862	중국	51,391,003	한국	383,248
정제당	824,542	232,059	255.3	브라질	637,420	한국	106,220	과테말라	24,301
츄잉껌	126,725	134,631	-5.9	중국	49,264	한국	27,550	태국	18,548
쿠키,비스킷,크래커	5,831,476	5,406,081	7.9	미국	770,779	한국	579,869	말레이시아	562,940
코코아조제품	1,938,347	1,523,353	27.2	싱가포르	1,439,336	한국	312,285	말레이시아	126,674
알콜음료	138,742,247	133,437,065	4.0	프랑스	52,710,234	한국	16,836,796	미국	12,010,844
쇼트닝	206,653	194,482	6.3	말레이시아	140,938	한국	51,378	인도네시아	14,337
조제식료품	70,078,932	68,506,039	2.3	미국	17,186,337	중국	10,071,778	한국	9,172,601
곤약	2,034,865	2,039,093	-0.2	중국	1,815,706	인도네시아	111,815	한국	100,209
인삼	912,566	1,059,534	-13.9	중국	852,908	대만	54,667	한국	4,74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10.10월)

- 가공식품(종합)의 10월 수입수량 지수는 98.7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였음.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9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로 약간 하락함

* 수입수량 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산출한 수치임

- 부류별로 보면 음료가 16%이상 상승하였고 주류가 6-11% 상승하였음. 한편 당류가 16%이상 감소하였고 곡분가공품이 11-16% 하락, 과자, 조미료가 6-11% 하락, 수산가공품은 3-6% 하락, 기타조제품이 1-3% 하락하였음
- 가공식품(종합)의 10월 수입액은 1,129억엔으로 대 전년동월 비 0.5%로 전년수준이었음. 가공식품(주류를 제외)은 971억엔으로 대 전년동월비 0.8%로 전년수준이었음
- 부문별로 보면 음료가 16%이상 증가하였고 축산가공품, 당류가 3-6% 증가하였음. 한편 곡분가공품이 11-16%감소하였고 조미료가 6-11% 감소, 수산가공품, 과자, 기타조제식료품이 3-6% 감소, 농산가공품, 주류가 1-3% 감소하였음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2010년 10월
절임류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910	727
김치	320	351	386	379	313	284	252	243	237	209	160
(%)	(27.2)	(29.6)	(32.6)	(33.6)	(30.3)	(29.2)	(25.8)	(25.4)	(24.9)	(23.0)	(22.0)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	증감율
절임류전체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910,051	726,975	-4.8
소금절임류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132,068	108,544	-2.4
초절임류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99,190	83,468	-0.5
아사즈케류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55,672	126,772	-2.6
쌀겨절임류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82,978	64,033	-8.7
간장절임류	496,491	466,037	433,302	425,309	423,467	389,857	301,856	-7.7
(김치)	(313,410)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160,190)	-8.4
주박절임류	35,669	37,665	34,983	34,508	35,099	32,310	28,279	5.5
된장절임류	9,047	8,044	7,974	8,008	7,632	7,450	6,032	-3.5
기타절임류	14,377	14,945	14,567	14,486	12,546	10,527	7,991	-6.4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주) 쌀겨절임류: 단무지포함

□ 일본의 김치 시장규모(일본산, 한국산)

(단위 : 톤, 점유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1-10
합계	316,067	274,749	265,113	261,001	233,358	180,098
일본산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160,190
한국산	31,153	22,626	22,085	23,064	24,123	19,908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세번 2005.99-919, 2005.99-999는 기타 절임류로서 한국산은 대부분 김치이나, 타국산은 김치외 다량의 기타절임류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타국산 순수 김치시장 규모 추정곤란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엔/kg)

연도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단가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2009	24,123	4.6	7,530	-5.2	312
2010년1-10월	19,908		6,249		314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주의: 순수 한국산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9-919, 2005.99-999를 합산하여 만든 수치임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3,661	26,308	113,433	22,455	120,616	21,709	109,830	19,813
한국	22,085	7,522	23,064	7,940	24,123	7,530	19,909	6,249
기타국	111,576	18,786	90,369	14,515	96,493	14,179	89,921	13,563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4.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요즈음 제자리 걸음상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실업률이 고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약한 움직임도 전망되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개선과 각종의 정책효과 등을 배경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해외 경기하락 염려, 환율·물가의 변동 등으로 경기가 한층 하락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디플레이 영향과 고용정세의 악화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함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긴요한 과제로 삼아 일본은행과 일체가 되어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노력을 시행할 것임.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정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제휴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고 기동적인 금융정책의 운영에 의해서 경제를 하한선에 유지하도록 기대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약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주택건설은 회복되고 있음
- 공공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무역서비스 수지의 흑자는 보합세를 보임

□ 기업 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요즈음 감소하고 있음
- 기업수익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업황은 신중한 견해가 많음. 도산건수는 완만한 증가경향에 있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보합세.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주가는 10,000엔대에서 9,900엔대까지 하락한 후 10,200엔대로 상승하고 있음

자료: 2010년 12월22일 내각부 발표

해외시장동향	중국	베이징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까르푸와 중국 최대 라면업체 담판 진전 없어

- 지난 11월1일 중국내 생산원가 상승을 이유로 중국내 대만계 최대 라면 생산업체인 캉스푸(康師傅)사는 생산하는 봉지라면 소매가격을 2위안에서 2.2위안으로 10% 인상한다고 밝힘. 이에 중국내 최대규모의 외자 할인매장 기업인 까르푸사는 공지문을 통해 캉스푸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동의할 수 없으며 매장 내에서 캉스푸 봉지라면 판매를 제한해 고객들이 캉스푸 봉지라면을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캉스푸사와 까르푸는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근 까지도 양 회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12월21일 캉스푸사 소속 익명의 관련인사는 언론에 “양 회사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으며 회사측은 봉지라면 소매가격 0.2위안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까르푸 측에서는 이 중의 0.1위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캉스푸측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담판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함
- 12월15일 캉스푸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까르푸매장에서 회사 봉지라면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회사 측의 납품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함. 현재 양사간의 담판은 해결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면 소매가격 인상문제에서 캉스푸사의 전체 제품의 까르푸 입점비용과 판매실적에 따른 매장 측 수수료 영역에까지 마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까르푸사는 캉스푸측 제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기 까지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12월15일 까르푸측도 성명을 통해 캉스푸사와 불필요한 쟁론은 피하기를 원하며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이번 까르푸사와 캉스푸사의 마찰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시장조사기구인 AC Nielsen사의 발표수치에 따르면 캉스푸사는 중국내 라면 시장 판매량과 판매액의 44.5%와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까르푸는 세계 2위의 할인매장기업이고 중국 내에서도 매출액 1,2위를 다투는 할인매장 기업이기 때문임

2. 시장동향

□ 앞으로 몇 년간 중국 양곡 가격 4-5% 상승 예상

- 중국과학원예측과학연구센터는 앞으로 몇 년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양곡가격은 매년 4-5%의 상승이 예상되며 국내 대두 생산량을 높혀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의 양곡 생산량 증가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이것은 양곡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생활의 향상과 함께 수산물, 목축업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이런 제품은 대량 양곡의 소모가 예상됨. 이와 반대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양곡 생산량의 증가에 영향주고 있으며 비록 어떤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에는 제한성이 있는 실정으로 양곡 가격 상승이 초래될 것임
- 정부조사 수치에 따르면 2008년말까지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1,217억ha로 2001년의 1,271억ha에 비해 감소되었고 우수 품종의 도입도 양곡 생산량 증가가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면적당 생산량 증가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내년 중국의 양곡 생산량은 5.5억톤 예상되어 올해의 5.464억톤에 비해 많을 것이며 내년 양곡 수요량은 약 5.4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도매시장동향

<2010. 11월 중국 과일 도매현황>

(단위: 톤, 만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부사사과	93600	51913	5.54	0.6↑	84.3↑
배(鴨梨)	13240	2793.2	2.10	0.07↑	36.3↑
바나나	8450	3056	3.61	3.2↓	18.4↑
거봉포도	3300	1464.4	4.40	54.8↑	67.8↑
수 박	24320	10061.15	4.13	11.6↓	145↑

<2010. 11월 중국 채소 도매현황>

(단위: 톤, 만위안, 위안/kg, %)

구분	신발지도매시장			전년동기대비 %	
	도매수량	도매금액	평균가	도매수량	도매금액
배추	29550	3057.86	1.03	103↑	165↑
당근	10380	1550.1	1.49	23.9↓	38.4↑
오이	10560	2798.1	2.65	5.2↑	19.3↑
고추	7460	1670.9	2.23	16.9↓	8.2↑
양파	24990	4660.5	1.86	9.5↑	80.8↑
생강	7080	4300.6	6.07	27.4↓	252↑
마늘	7920	8078.8	10.2	0.5↓	101.3↑
파	29860	5279.5	1.76	16.5↑	230↑
상추	8420	2866.9	3.40	14.2↓	124↑
시금치	1660	339.6	2.04	30.6↓	23.2↓
호박	9060	1887.1	2.08	29.9↓	22↑
가지	6890	1622.3	2.35	29.3↓	14.6↓
무	71	3.85	0.54	71.8↑	285↑
감 자	26120	6236.95	2.38	9.4↓	170↑
양배추	13870	2596.15	1.87	3.4↑	58.7↑
토마토	8580	2393.9	2.79	25.8↓	13.6↓
땅콩	642	574.5	8.94	13.3↑	64.5↑

자료원: 베이징신발지도매시장

3. 수출입동향

□ 수출입 동향 개요

- 2010년 11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52.4억달러로 전월대비 12.1억달러 증가하여 29.9%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40.5% 증가함
- 2010년 1~11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432.5억달러로 동기대비 24.3% 증가함
- 2010년 11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68.3억달러로 전월대비 17.4억달러 증가하여 34.3%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55.5% 증가함
- 2010년 1~11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632.5억달러로 동기대비 37.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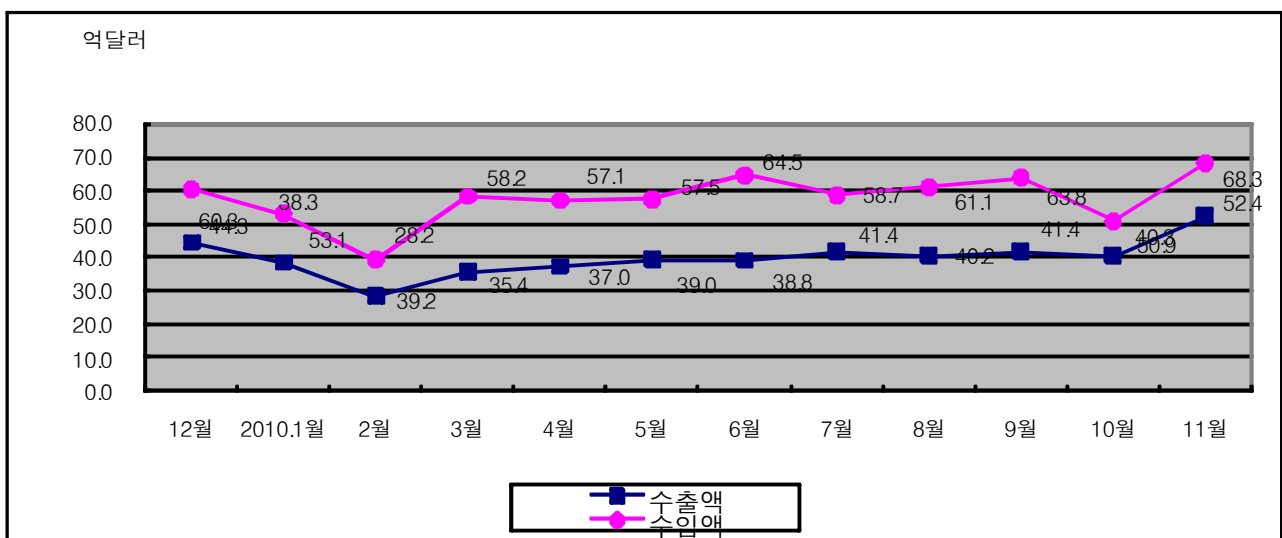
< 2010. 11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11월 당월		1-11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 출 액	52.4	40.5	432.5	24.3
◦ 수 입 액	68.3	55.5	632.5	37.1
□ 무역수지	-10.6	-	-184	-

자료원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통계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11월누계			품목부류	11월누계		
	2009	2010	증감		2009	2010	증감
산동물	13,996	25,459	81.9	동식물유지 등	698,550	771,042	10.4
축산육류 및 잡육	64,170	109,067	70.0	육류제품	244.3	541.7	121.7
가금육 및 잡육	86,391	85,254	-1.3	수산물제품	4,708	8,592	82.5
수, 해산품	319,971	391,172	22.3	당류제품	45,235	95,203	110.5
유제품, 난류, 꿀 등	92,211	179,590	94.8	코코아, 그제품	22,047	37,833	71.6
기타 동물산품	25,153	38,076	51.4	곡물, 전분제품 등	89,637	110,142	22.9
산식물 및 화훼	8,474	9,826	16.0	채소, 과일, 견과제품	30,295	41,195	36.0
식용채소	92,371	141,964	53.7	기타식품	43,418	60,210	38.7
식용과실 및 견과	154,501	190,190	23.1	음료, 술 및 식초	95,789	414,888	48.1
커피, 차, 조미향료	7,528	13,169	74.9	식품공업 잔류물	169,518	303,427	79.0
곡 물	73,163	139,647	90.9	연초 및 그제품	60,666	54,487	-10.2
제분공업제품	27,041	39,062	44.5	기타농산물	509,776	913,079	79.1
유료, 벚짖, 사료 등	1,860,512	2,393,986	28.7	가금류제품	95,908	96,430	0.5
식물액, 즙	10,778	10,922	1.3	축산제품	459,087	714,061	55.5
편직용 식물재료	8,830	18,169	105.8	-			

□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불)

구 분	2009 1~11월	2010 1~11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147,991	183,503	24.0
- 태 국	45,341	45,805	1.0
- 미 국	24,348	31,949	31.2
- 베 트 남	26,735	28,559	6.8
• 당 류	36,582	83,792	129.1
- 쿠 바	16,397	22,928	39.8
- 한 국	5,031	8,638	71.7
- 브 라 질	6,557	45,526	594.3
• 대 두	1,660,237	2,218,378	33.6
- 미 국	717,920	871,166	21.3
- 아르헨티나	165,129	428,611	159.6
- 브 라 질	734,727	811,157	10.4
• 벼 와 쌀	15,834	18,997	20.0
- 태 국	15,575	16,605	6.6
- 라 오 스	114	163	43.4
- 베 트 남	86	2,072	2,296
• 면 화	175,975	442,975	151.7
- 인 도	26,507	108,469	309.2
- 미 국	80,075	169,310	111.4
- 우즈베키스탄	15,946	56,319	253.2
• 냉동어류	240,488	282,566	17.5
- 러 시 아	100,614	113,146	12.5
- 노르웨이	17,341	25,658	48.0
- 미 국	41,932	53,177	26.8
• 옥 수 수	1,556	36,278	2,231
- 미 국	428	34,775	8,027
- 라 오 스	538	698	29.8
- 독 일	117	269	128.9
• 밀	16,232	31,368	93.3
- 호 주	6,299	19,229	205.2
- 캐 나 다	1,831	7,782	325.1
- 미 국	6,815	3,140	-53.9

□ 한국산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별 수입액('10.10누계)		
	'09.10누계	'10.10누계	'09.10누계	'10.10누계			
자당	51,620	88,638	41,536	74,791	태국 (3,686)	호주 (7,335)	영국 (2,348)
채소종자	55,220	79,131	1,716	2,809	일본 (24,515)	태국 (7,705)	미국 (7,173)
기타베이커리제품	56,500	76,779	11,353	14,547	홍콩 (41,162)	대만 (9,363)	인도네시아 (6,890)
라면	6,904	11,212	26,263	24,059	홍콩 (3,025)	일본 (1,847)	대만 (1,449)
맥주	40,670	48,501	2,424	2,782	대만 (3,594)	독일 (20,903)	멕시코 (6,070)
소주	10,672	11,118	4,008	4,017	대만 (515)	일본 (4,879)	호주 (484)
홍삼	3,353	3,664	3,543	5,197	북한 (422)	-	-
간장	8,953	13,064	1,309	1,312	일본 (7,446)	대만 (1,378)	싱가폴 (2,035)
팽이버섯	3,605	4,699	7,512	4,922	대만 (145)	-	-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실적보다 적음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9.10) 41,536천불 → (2010.10) 74,791천불 (80.1%증가)
 - 중국은 현재 설탕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비축설탕을 방출하는 등 올해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국산은 중국의 설탕 공급부족과 식품산업 수요 및 가정소비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10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자당 수입액은 74,79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80.1% 대폭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최대 자당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 채소종자 : (2009.10) 1,716천불 → (2010.10) 2,809천불 (63.7% 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고추, 배추, 무 종자 등 우수한 품질로 현지경쟁력있어 증가전망
 - 10년 10월까지 수입액은 2,809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63.7% 대폭 상승함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9. 10) 11,353천불 → (2010. 10) 14,547천불(28.1% 증가)
 - 고급제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감에 따라 수입산 구매량이 증가중
 - 2010년 10월까지 한국산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14,547천불로 전년비28.1% 증가

- 한국산 과자류는 과거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전문점에서 판매되다가 현재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인들의 소비도 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증가 기대됨
- 라 면 : (2009.10) 26,263천불 → (2010. 10) 24,059천불 (8.3%하락)
 - 2010년 10월까지 한국산 라면의 수입액은 24,059천불로 동기대비 8.3% 하락함
 - 현지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라면과 수입산의 뚜렷한 맛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지인들은 가격이 싼 현지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산 라면은 현지 거주 한국인들이 주로 본고장 맛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변동요인은 크지 않음
- 맥 주 : (2009. 10) 2,424천불 → (2010. 10) 2,782천불 (14.7%증가)
 - 한국산 맥주는 현지인 대상 판매는 미미하며 주로 한국식당 및 술집 등 요식업소에서 판매됨
 - 2010년 10월까지 수입액은 2,782천불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함
- 소 주 : (2009.10) 4,008천불 → (2010.10) 4,017천불 (0.2% 증가)
 -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한 한국음주 문화 전파로 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주요 소비층은 현지 교민과 동포로서 10월까지 수입액은 4,017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함
- 홍 삼 : (2009.10) 3,543천불 → (2010.10) 5,197천불 (46.7% 증가)
 - 한국산 홍삼은 현지에서도 고급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관장 제품은 현지에 많은 전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산 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됨
 - 10월까지 수입액은 5,197천불로 전년대비 46.7% 대폭 증가함
- 간 장 : (2009.10) 1,309천불 → (2010.10) 1,312천불 (0.2% 증가)
 - 고급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간장은 대부분 일본산이며 한국산은 주로 한국식당과 한국인 대상으로 많이 소비되고 일부 대형매장과 한국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 2010년 10월까지 수입액은 1,312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함
- 팡이버섯 : (2009.10) 7,512천불 → (2010.10) 4,922천불 (34.5% 감소)
 - 2010년 10월까지 팡이버섯 수입량은 4,922천불로 지난 동기대비 34.5% 감소함
 - 중국의 팡이버섯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국 내 판매가격 하락 '

4. 경제전망

□ 중국 11월까지 수출입총액 26,772.8억달러, 전년대비 36.3% 증가

- 2010년 11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6,772.8억달러로 전년대비 36.3% 증가함. 그중 수출액은 14,238.4억달러로 3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2,534.3억달러로 40.3% 증가하여 1,704.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냄
- 2010년 10월 수출입 총액은 2,837.6억달러로 동기대비 36.2% 증가함. 그중 수출액은 1,533.3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9%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304.4억달러로 37.7% 증가함

<2010. 11월 중국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11월 당월		1-11월 누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 수출입총액	2,448.1	24.0	23,934.1	36.3
수 출 액	1,359.8	22.9	12,705.9	32.7
수 입 액	1,088.3	25.3	11,228.2	40.5
□ 무 역 수 지	271.5		1,477.8	

자료원: 중국상무부

□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5.1% 상승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5.1% 상승함. 그중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4.9% 상승하고 농촌 소비자물가지수가 5.6% 상승함
- 식품류 가격이 11.7% 상승하고 담배, 술 및 관련 제품 가격이 1.6% 상의복류 가격이 0.7% 하락하였으며 가정용 설비용품 및 가공정비 서비스 가격이 0.7% 상승함
-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류가 4.0% 상승하고 교통 및 통신류 가격이 0.7% 하락, 오락 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류 가격이 0.6% 상승하고 거주류 가격이 5.8% 상승함
- 1-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상승하고 전월대비 0.2% 상승함

(자료원: 국가통계국)

해외시장동향	미국	뉴욕 aT
--------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미국 뉴욕시 식품공급체계 확 바뀌

- 뉴욕시의회가 포괄적인 식품 공급 체계 개선안을 제시했음
- 크리스틴 쿤 뉴욕시의회 의장은 2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뉴욕시의 현 식품 공급체계로는 20년 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힘
'푸드웍스'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뉴욕시 인구가 100만 명가량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뉴욕시 어린이의 25%가 비만', '시민 300만 명 거주지인근에 식품점 부족', '시민 140만 명 식품 구입 어려움', '저소득층 학생의 30% 무료 급식 혜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계획 -
 - 식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욕주내 3만6000여 농장과 연계를 강화해 뉴욕시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는 등 59가지의 대안을 제시했음. 이를 위해 파머스마켓을 늘리고,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저렴한 공장부지 제공, 신규 사업자 기술지원, 식품관련 비즈니스간 컨퍼런스 마련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이 방안에는 뉴욕시 농산물 공급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헨츠포인트 청과물시장의 기능 개선과 처리량 증대를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들어 있음. 푸드스탬프 등 정부지원 식품 공급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지문날인 항목도 폐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뉴요커들이 식품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 공립학교 급식 체계도 아침식사는 샐러드와 건강식 위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전체적인 급식의 영양 상태도 개선시킬 계획임

□ 미국 식품안전개선법 개선안 진행현황

- 미 의회 상원이 지난 11월 30일 식품안전 관리 규정을 70년 만에 크게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음. 본 법안은 현재 하원의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미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3, 반대 25로 식품안전 관리개선법안이 채택됐음.

- 미국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식품안전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올해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가 있었음.
- 강화되는 감찰활동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하원에서의 채택은 지연되고 있는 중임
- 이번 표결된 식품안전개선법은 식품 생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시행해야 할 안전조치들을 강화하는 내용을 가짐. 농부나 식품생산업자가 식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의무 규정을크게 늘렸으며, 생산과정에서 의무적인 검사 및 관리 조항들을 추가했음
- 또한 관련규정 위반시 식품안전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해당 생산업체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음 이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련 감독권한 및 업무 또한 강화됨, 식품안전문제관련 조사권과 강제회수권, 식품 오염원에 대한 추적기술을 강화했음
- 미국은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유통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 파장이 매우 큼. 생산유통업체들이 대형화되면서 오염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퍼져나가는 규모와 속도가 빨라진 것임. 예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의 업체에서 생산한 상추가 농업용수로 오염되어 리콜되었으나, 이미 미국의 50개주 중 19개주에서 유통 중이었음
- 현행 규정은 예방보다 문제가 생긴 후의 대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있어 정부의 세세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해당 국가의 생산 과정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직접 책임지고 파악하는 내용의 규정을 강화토록 했음

-주요 식품안전문제-

- 올해 8월 발생한 달걀 살모넬라가 가장 대표적인 식품안전 문제 사례였음. 이 살모넬라 사태로 인해 1천700명이 증상을 호소했으며 5억개 이상의 계란이 회수됐음. 지난 12월에는 땅콩버터가, 2007년에는 시금치가 대량 리콜 처분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스타치오, 우유 등 여러건의 대량 리콜사태가 있어왔음
- 미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미국인의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7천600만명이 예

방가 가능한 식품원인 질병에 걸리고 이중 32만5000명이 입원하며, 5천명은 음식으로 인해 사망했음

-반응-

- 중대형 식품관련업체는 관리비용 증가와 소형생산가공업체 차등관리 등의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음. 대체로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강화에 대한 본 법안을 환영하는 추세임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고구마 현황 및 미국 고구마 소비 동향

○ 공급시기

- 올해 North Carolina지역은 무덥고 건조한 여름 날씨를 보였으며, 고구마 생산유통업자들이 마지막 강우를 기다린 영향으로 추수시기가 늦춰졌음. North Carolina지역의 고구마는 10월 중순부터 공급을 시작했음

○ 생산량

- 올해의 고구마 수확량은 예년수준이었음. 작년에는 수확량이 낮았던 다른 주에 비해 North Carolina의 수확량이 월등히 높았으나, 올해는 다른 지역의 고구마 생산량이 늘어나고 North Carolina지방의 고구마 생산량은 보통으로 돌아와 전체 고구마 지역들의 생산량이 비슷했음. North Carolina의 고구마생산량은 2009년 1300만 상자였으며, 2008년은 1000만 상자였다. North Carolina의 생산지는 작년보다 20-25%가량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2008년과 유사함

○ 가격 동향

- 고구마 시장은 푸드 서비스 및 가공 산업의 수요로 인해 몇 년 동안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 North Carolina산 1등급 오렌지 고구마 40파운드 박스는 애틀란타로 22-24달러에, 흰 고구마는 \$17에 유통되었음

○ 소비 동향

- 5월 23일 막일 기준 연간 고구마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1.6%이상 감소같은 시기동안 평균 소매가격은 0.7%감소되어 파운드당 96센트의 가격대를 보임. 고구마는 전체 채소의 1.1%, 전체 농산물의 0.5%를 차지. 전체 채소와 전체 농산물의 판매량 및 판매액이 증가한 반면, 고구마는 하락세를 보임.
- NPD Groups의 2010 National Eating Trends에 따르면, 소비자의 12%가 고구마를 2주에 한번 소비 2010년 한해 고구마의 개인당 연간 소비량은 작년보다 약간 하락한 4.8개 고구마 평균 섭취 형태는 저녁 74%, 점심 20%, 집에서 휴대 2%, 아침 2%, 간식 2% 저소득 가정과 보통의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고구마 섭취율이 높음

□ 미국 2010년 딸기 현황

○ 수급 현황

- 미국 딸기 소비량은 지난 8년간 연속 증가해 왔으며 해외로부터의 딸기 수입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미국 딸기 공급량 및 이용량>

(단위: 백만 파운드, 1인당 소비량 단위: 파운드)

연도	공급량 (증감률%)			이용량 (증감률%)		
	생산량	수입량	전체	수출량	소비량	
					전체	1인당
2001	1259.7 (-12.1)	70.7 (-7.2)	1330.4 (-11.9)	128.1 (-6.2)	1202.3 (-12.4)	4.21 (-13.4)
2002	1406.3 (11.6)	89.9 (27.2)	1496.2 (12.5)	156.9 (22.5)	1339.3 (11.4)	4.64 (10.2)
2003	1642.4 (16.8)	90.3 (0.4)	1732.7 (15.8)	194.8 (24.2)	1537.9 (14.8)	5.28 (13.8)
2004	1694.4 (3.2)	94.4 (4.5)	1788.8 (3.2)	182.6 (-6.3)	1606.3 (4.4)	5.46 (3.4)
2005	1811 (6.9)	122.7 (30.0)	1933.7 (8.1)	207.6 (13.7)	1726.1 (7.5)	5.82 (6.6)
2006	1910.9 (5.5)	153.4 (25.0)	2064.3 (6.8)	229.1 (10.4)	1835.2 (6.3)	6.13 (5.3)
2007	1973.3 (3.3)	157.7 (2.8)	2131 (3.2)	240.3 (4.9)	1890.7 (3.0)	6.27 (2.3)
2008	2091.1 (6.0)	143 (-9.3)	2234.1 (4.8)	269.2 (12.0)	1964.9 (3.9)	6.45 (2.9)
2009	2288 (9.4)	187.2 (30.9)	2475.2 (10.8)	271.7 (0.9)	2203.4 (12.1)	7.17 (11.2)
2010	2066.9 (-9.7)	221.2 (18.2)	2288.1 (-7.6)	268 (-1.4)	2020.1 (-8.3)	6.51 (-9.2)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 수출연계 및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수요 현황-

- 미국의 신선 딸기 수요는 4계절 계속 유지되고 바나나, 사과, 오렌지, 포도에 이어 미국 과실류 판매액의 5위에 이르며 그 가치는 21억불에 이릅니다. 미국 내의 신선 딸기 소비량은 2005-09년 1인당 연간 평균 6.0파운드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대 초의 두 배 가량의 선호도를 보이는 꾸준하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딸기 소비량은 지난 8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1인당 7파운드의 소비량을 보였음. 냉동 딸기에 대한 수요 또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은 1-2파운드

-시장진출 여건-

- 현재 미국의 딸기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2%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미국은 2위의 수출국가인 동시에 5위의 수입국가 이기도 하므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출시장으로 보임

-대응 방안-

- 현재 우리나라의 딸기는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상품에 비해 3배 높은 수출단가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높은 단가에 상응하는 한국 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한국 딸기의 우수한 품질을 미국에서도 유지하기 위하여 딸기의 품질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운송 및 유통에 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시스템과 포장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수한 품질과 함께 미국 및 타 수입국상품에 비해 적정하게 높은 가격을 가진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시장 동향

□ 헌츠포인트 뉴 폴톤 수산물 도매시장 (The New Fulton Fish Market Cooperative at Hunts Point)

○ 연혁

- 1822년 뉴욕 맨하탄 남단의 항구 South Street Seaport 인근지역에 청과물, 육류, 수산물을 파는 종합시장으로 출발
- 1800년대 말 구매와 교통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과 일반 식품류는 맨하탄 11가 허드슨 강변 쪽으로 이전하고 폴톤은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변화: 시장의 전문화 이후 폴톤은 단기간에 수산업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1950년경에는 뉴욕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생선류의 중간 유통지로 자리를 굳힘
- 1999년 뉴욕시장 줄리아니가 폴톤어시장의 이전 계획 발표, 2001년 1월 폴톤어시장의 헌츠포인트 이전법입안, 그 해 11월 26일 헌츠포인트 폴톤어시장 시공식개최
- 당초 2005년 1월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하역업체의 소송 등으로 입주가 연기되다가 2005년 11월 14일 개장
- 폴톤어시장의 이전 동기: 세금 징수를 위한 조직범죄 척결, 사우스 스트리트 지역이 관광지화되고 고급 소매점이 입점하면서 냄새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인근의 부동산 가격 및 렌트비 상승, 시장의 고급화 요구, 수산물 노상판매를 금지하는 FDA 규정 변화 등

○ 시장운영시간

- 도매업자: 월-금 01:00 ~ 07:00
- 소매업자: 화/수/금 01:00 ~ 07:00, 월/목 06:00 ~ 07:00
- 산지직송시장(일반고객대상): 월-금 01:00~07:00, 토 01:00~08:00
- * 신선한 상품의 구입을 위해서 5시 이전의 입장이 권유됨

- 주소: 800 Food Center Dr., Unit 65B Bronx NY 10474전화: (718) 378-2356, 팩스: (718) 378-2355 홈페이지: www.newfultonfishmarket.com

-시설현황-

- 헛스포인트 시장 남단 30에이커의 부지에 43만 평방피트(37,000 m²), 시장중앙통로 1,300피트의 2층 규모(세계 두 번째 규모)
- 수산시장 중앙 통로 양편으로 도매업소들이 입점해 있으며 주차장과 하역시설장이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음. 10만평방피트 규모의 중2층에 사무실과 라커룸, 식당, 은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시설특성-

- 온도 통제가 가능한 판매장, 실내 완전 냉동 HACCP 인증 시설, FDA의 수산물 판매규정에 적합한 식품분배시설, 출입구 통제장치, 광대한 주차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음. 새 시장에서는 하역 시간이 기존의 5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단축되며, 전용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영업시간(새벽 1시부터 7시까지)이 연장됨

-시장현황-

○ 거래규모

- 100~300여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루 약 100만 파운드 거래
- 연간거래규모: 물량기준 2억 파운드(10만 톤), 금액기준 10억 달러
- 뉴욕시 해산물 수요의 1/3 수용
- 미국 최대 규모이자 전 세계 2~3위 규모

○ 거래 수산물 현황

- 신선 생선 : 방어류, 멸치류, 넙치류, 참치류, 대구류 등 52개 어종
- 신선 해산물 : 게, 랍스타, 새우 등의 28개 품목
- 냉동 생선 & 생선살 : 멸치, 참치, 연어 등의 34개 품목
- 냉동 해산물 : 전복, 게, 새우 등의 16개 품목
- 절엽 : 대구 등의 4개 어종
- 훈제 : 참치, 대구 등의 12개 품목

○ 입주업체

- 시장입주업체 37개소
- 소매고객상의 75% 정도가 한인이며(하루 약 400~500명) 한인 소매상 대변기구로 '뉴욕한인수산물협회'가 구성되어 있음

-시장관리-

- 현츠포인트를 관리하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EDC: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가 풀톤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발과 리스에 책임을 지고 있음

3. 과채류 도매가격 (현츠포인트 터미널마켓기준 2010.12.15)

(단위: US\$)

품목	사이즈	최고가격	최저가격	원산지
사과 레드딜리셔스	80개/40LB	28	22	워싱턴
사과 골든딜리셔스	80개/40LB	36	22	워싱턴
사과 그라니스미스	80개/40LB	36	22	워싱턴
사과-후지	80개/40LB	36	22	워싱턴
신고배	10개/10LB	16	14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	88개/38LB	22	14	캘리포니아
밀감	24개/5LB	5	2	모로코
키위	27개/1(단)	20	19	칠레
딸기	8 /1-Pt	48	42	캘리포니아
레몬	140개/38LB	24	18	캘리포니아
자몽 레드	56개/34LB	10	9	플로리다
양배추	1 3/4Bushel	16	16	뉴욕
배추	30LB	18	16	캘리포니아
마늘	30LB	68	62	캘리포니아
양파	50LB	12	12	아이다호
토마토	5x6/25LB	12	8	플로리다
표고버섯	3LB	16	8	펜실베이니아
감자	80개/50LB	19	18	아이다호
파	48Bu/13LB	19	18	멕시코
고구마	40LB	30	24	캘리포니아
파프리카	1 1/9Bushel	40		조지아

(자료:USDA)

4. 미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0년 10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 출 액	82,082,375	96,126,409	17.10
○ 수 입 액	67,809,811	77,238,373	13.90
□ 무역수지	14,272,564	18,888,036	32.33

자료: BICO USDA

□ 2010년 10월 미국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

구 분	2009년 10월	2010년 10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농림수산제품	78,497,868	88,978,232	13
○ 소비재	38,657,756	43,049,098	11
○ 중간소비재	12,001,849	13,782,441	15
○ 1차농산물	10,688,057	11,739,859	10
○ 수산물	8,907,305	10,745,568	21
○ 임산물	8,242,901	9,661,266	17

자료: BICO USDA

□ 주요 국가별 2010년 10월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브라질	칠레
총수입액	77,238,373	16,212,877	11,454,480	5,069,282	2,810,888	2,279,918
전년 동기대비(%)	13.90	12.18	18.08	18.29	13.60	3.78

자료: BICO USDA

□ 2010년 10월 미국 수입 동향 분석

- '10년 9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은 69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
 - 쌀은 2%하락, 차류 19% 상승
 - 신선과일은 13%, 신선채소는 27%상승, 주스류는 4%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5%, 스낵류는 17%로 지속적인 상승세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7%상승, 종자류는 작년과 동일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사탕수수 및 사탕무, 카카오, 차류, 중간소비재는 코코아 잼 및 버터, 열대성 오일, 직접 소비재는 커피, 신선채소류로,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생산 및 소비경기가 호전되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상승하면서 소비재 수입물량이 늘어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밀 -24%, 담배 -22%, 사료 -19%, 등의 하락률을 보임. 중간소비재는 종자류 -1%, 직접 소비재는 신선육류 -24%, 치즈류 -6%, 주스류 -4%, 낙농제품 -2%의 하락률을 보임

□ 2010년 10월 미국 수출동향 분석

- '10년 9월의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8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
 - 생선알 -16%, 가금류 -9%, 땅콩 -3%, 원예작물/절화 -3%, 연어통조림 -1%를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 수출 증가
 - 1차 농산물은 13% 상승, 중간소비재는 24% 상승, 최종소비재는 13% 각각 증가함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08	'09	10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254,451	249,526	192,150	237,620	24

자료: BICO USDA

□ 2010년 10월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23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92백만 달러 대비 24% 상승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168백만 달러에서 205백만 달러로 22% 증가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169십만 달러에서 242십만 달러로 43% 증가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311만 달러에서 493만 달러로 58% 증가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326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8%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종자류, 설탕/감미료류, 당류, 사료용 곡물, 차류, 스낵류, 주스류, 원예작물/절화, 과일채소 가공품, 향신료, 유제품, 주류, 커피류, 신선채소류 등
 - 종자류: 고추, 무,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등의 종자류 수입 증가
 - 2009년 대비 콩류의 수입이 증가
 - 차류 및 스낵류의 꾸준한 수입량 증가
 - 신선채소류중 무 수입은 125% 증가 했으나 버섯(-34%) 및 인삼뿌리(-4%) 수입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

- 주요 감소품목은 신선 과일류, 견과류, 쌀, 치즈류, Live animal, 천연 고무류, 목재 가공품류, 합판류 등
 - 신선과일류: 배(-7%), 포도(-18%)의 수입량 감소
 - 견과류: 밤(-41%) 수입량 감소
 - 혼합미의 수입증가(325%)에도 불구하고 단립(-25%), 장립(-30%)일반미 및 쌀가루(-15%)의 수입감소로 총 쌀 수입량 -11% 감소
 - 목재 가공품의 경우 일부 제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수입량이 감소

<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10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농림축산물	캐나다	24,844,151	19,244,318	16,212,877	18,188,279	???12
	멕시코	11,174,842	11,585,804	9,700,377	11,454,480	18
	중국	6,310,997	5,190,748	4,285,326	5,069,282	18
	브라질	3,485,249	3,026,620	2,474,233	2,810,888	13
	계	45,815,239	39,047,490	32,672,813	37,522,929	14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6,852,392	4,531,220	3,825,725	4,658,627	22
	중국	2,862,614	2,325,121	1,911,930	2,319,331	21
	브라질	814,564	530,699	452,103	508,607	12
	칠레	658,019	502,624	421,113	432,671	3
	계	11,187,589	7,889,664	6,610,871	7,919,236	20
별크농산물전체	캐나다	2,824,079	??1,827,158	1,567,217	1,394,037	-11
	인도네시아	2,098,859	1,223,098	1,013,014	1,249,985	23
	브라질	1,102,547	1,141,051	913,556	1,249,985	37
	콜롬비아	819,902	746,823	606,918	575,084	-5
	계	4,021,308	3,110,972	2,533,488	3,075,054	21
사료용 곡물	캐나다	818,244	482,453	425,692	345,302	-19
	독일	24,270	10,383	5,956	0	
	멕시코	10,909	8,393	7,426	4,713	-37
	핀란드	6,072	4,817	1,751	9,584	447
	계	859,495	506,046	440,825	359,599	-18
쌀	태국	341,193	370,728	299,888	323,651	8
	인도	125,442	113,523	93,408	96,001	3
	이집트	2,101	31,553	31,429	255	-99
	파키스탄	30,525	21,153	18,177	18,207	0
	계	499,261	536,957	442,902	438,114	-1
담배	브라질	331,213	305,873	257,997	262,423	2
	터키	94,634	192,812	144,363	53,697	-63
	말라위	34,733	41,171	28,726	30,272	5
	캐나다	26,694	37,891	23,611	51,481	118
	계	487,274	577,747	454,697	397,873	-12
차(허브차포함)	캐나다	78,999	95,433	84,387	95,306	13
	중국	88,802	76,972	63,514	76,556	21
	인도	51,045	52,813	42,591	50,113	18
	아르헨티나	45,421	51,410	47,640	57,338	20
	계	264,267	276,628	238,132	279,313	17
중간재농축산물	캐나다	5,649,223	4,140,020	3,500,266	3,795,090	8
	아일랜드	2,037,818	1,778,351	1,525,839	1,544,924	1
	말레이시아	1,602,824	1,159,376	986,647	1,218,715	24
	멕시코	1,006,766	1,097,111	895,158	1,097,640	23
	계	10,296,631	8,174,858	6,907,910	7,656,369	11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1,456,590	994,181	828,213	897,227	8
	이탈리아	656,198	542,063	428,397	417,487	-3
	스페인	230,455	184,094	156,238	182,603	17
	튀니지	103,819	99,906	92,673	69,380	-25
	계	2,447,062	1,820,244	1,505,521	1,566,697	4
종자류	칠레	166,376	193,957	192,993	207,727	8
	캐나다	196,455	173,280	149,814	128,418	-14
	네덜란드	61,276	75,593	56,818	56,123	-1
	아르헨티나	93,965	71,799	71,715	36,643	-49
	계	518,072	514,629	471,340	428,911	-9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10월		
		금액	금액	'09	'10	%
				금액	금액	전년대비
과당류	멕시코	403,906	435,240	400,508	482,355	20
	캐나다	333,473	290,667	246,515	252,810	3
	파테말라	82,661	62,697	55,538	81,640	47
	브라질	64,235	26,069	18,597	40,980	120
	계	884,275	814,673	721,158	857,785	19
○소비제품농축산물? 전체	멕시코	9,429,052	9,790,128	8,180,264	9,756,240	19
	캐나다	9,518,456	8,745,919	7,319,670	8,340,525	14
	이탈리아	2,474,998	2,224,176	1,776,475	1,878,101	6
	중국	2,492,366	2,068,047	1,714,079	1,955,712	14
	계	23,914,872	22,828,270	18,990,488	21,930,578	15
- 스낵류 (초콜렛포함)	캐나다	2,473,873	2,311,635	1,914,822	2,267,090	18
	멕시코	898,521	1,044,238	860,077	1,046,591	22
	독일	202,761	188,137	150,671	181,242	20
	중국	185,643	166,433	132,312	151,861	15
	계	3,760,798	3,710,443	3,057,882	3,646,784	19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70,434	543,135	438,606	364,207	-17
	캐나다	106,308	86,599	72,970	87,089	19
	호주	103,049	80,469	62,629	67,971	9
	네덜란드	81,034	70,797	55,223	51,434	-7
	계	960,825	781,000	629,428	570,701	-9
- 신선채소	멕시코	2,941,594	2,841,861	2,270,305	2,955,183	30
	캐나다	925,150	849,995	755,066	887,423	18
	페루	184,341	197,436	144,567	176,459	22
	중국	91,097	75,105	58,232	110,949	91
	계	4,142,182	3,964,397	3,228,170	4,130,014	28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82,610	1,928,523	1,690,812	1,990,797	18
	칠레	1,245,144	1,251,467	1,097,331	1,213,811	11
	코스타리카	424,558	430,724	369,623	399,852	8
	캐나다	150,591	146,175	126,717	130,163	3
	계	3,502,903	3,756,889	3,284,483	3,734,623	14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156,286	1,087,165	921,272	907,482	-1
	멕시코	807,692	810,748	693,443	783,785	13
	중국	813,930	746,140	618,475	674,904	9
	태국	381,839	379,074	314,021	335,222	7
	계	3,159,747	3,023,127	2,547,211	2,701,393	6
- 주스류	중국	675,381	356,957	317,122	300,065	-5
	브라질	331,375	304,232	242,040	253,664	5
	멕시코	206,067	173,062	143,214	160,783	12
	아르헨티나	216,796	141,531	122,814	94,100	-23
	계	1,429,619	975,782	825,190	808,612	-2
- 견과류	베트남	277,253	258,282	211,927	281,695	33
	멕시코	176,613	219,375	131,243	123,833	-6
	인도	242,454	174,884	149,593	162,268	8
	브라질	132,474	155,928	127,084	130,282	3
	계	828,794	808,469	619,847	698,078	13
- 주류 (와인과맥주)	멕시코	1,578,063	1,535,791	1,355,611	1,419,652	5
	이탈리아	1,343,180	1,230,299	985,892	1,057,567	7
	프랑스	1,459,284	991,639	785,442	800,677	2
	네덜란드	1,062,954	966,168	823,171	829,098	1
	계	5,443,481	4,723,897	3,950,116	4,106,994	4

자료: USDA BICO Report

(단위: US천불, %)

품목	국가	'08	'09	10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원예작물/절화	콜롬비아	515,646	516,514	443,797	479,664	8
	캐나다	270,648	247,435	189,177	222,057	17
	네덜란드	236,951	195,029	167,140	164,126	-2
	에콰도르	134,331	118,641	103,551	117,290	13
	계	1,157,576	1,077,619	903,665	983,137	9
- 커피(구운것/인스턴트)	캐나다	131,155	172,837	139,670	208,804	49
	멕시코	96,919	106,704	89,171	115,103	29
	콜롬비아	42,333	95,917	69,807	115,679	66
	브라질	105,046	89,130	74,880	67,447	-10
	계	375,453	464,588	373,528	507,033	36
향신료	인도	179,470	129,485	108,236	132,999	23
	인도네시아	130,525	100,241	80,132	104,726	31
	캐나다	94,496	82,063	71,059	61,519	-13
	중국	86,821	81,393	65,150	88,277	35
	계	491,312	393,182	324,577	387,521	19
- 인삼(뿌리)	홍콩	2,756	5,563	3,998	4,779	20
	중국	9,601	4,741	3,795	6,094	61
	대만	2,787	3,221	2,255	1,761	-22
	캐나다	1,896	1,485	1,340	1,542	15
	계	17,040	15,010	11,388	14,176	24
- 배	아르헨티나	36,205	38,060	38,060	32,467	-15
	한국	21,670	23,356	12,587	11,737	-7
	칠레	22,164	18,955	18,955	14,661	-23
	중국	12,333	10,056	7,854	3,868	-51
	계	92,372	90,427	77,456	62,733	-19
감귤(만다린)	스페인	87,936	72,409	21,025	15,981	-24
	칠레	17,385	28,899	28,899	35,388	22
	모로코	26,116	22,985	12,355	16,630	35
	페루	8,640	11,435	11,435	12,849	12
	계	140,077	135,728	73,714	80,848	10
- 포도(신선)	칠레	679,137	702,056	632,165	695,923	10
	멕시코	224,769	285,870	285,789	463,856	62
	페루	26,268	31,682	11,997	28,726	139
	브라질	38,663	22,237	11,719	10,614	-9
	계	968,837	1,041,845	941,670	1,199,119	27
- 딸기(신선)	멕시코	116,806	151,773	120,344	181,315	51
	캐나다	499	755	755	1,200	59
	페루	107	403	48	74	54
	중국	99	60	49	0	-100
	계	117,511	152,991	121,196	182,589	51
- 밤	이탈리아	4,698	5,530	974	1,128	16
	한국	992	3,225	1,631	966	-41
	중국	3,941	2,801	1,879	2,191	17
	포르투갈	262	381	27	74	174
	계	9,893	11,937	4,511	4,359	-3

자료: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

(단위: US천불, %)

품목	'08	'09	10월		
			'09	'10	%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341,681	345,451	171,179	212,629	22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289	4,088	3,026	2,772	-8
○ 벌크농산물전체	5,822	4,449	2,733	4,259	56
- 차(허브차포함)	3,713	3,365	1,834	3,394	85
- 쌀	380	790	667	572	-14
- 사료용 곡물	22	60	31	90	190
- 담배	0	0	0	0	-
○ 중간재농축산물 전체	21,044	21,335	15,046	21,698	44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지제외)	1,786	1,826	1,329	1,370	3
- 종자류	1,413	928	407	2,606	540
- 당류	1,091	892	372	1,351	263
○ 소비재농축산물 전체	222,296	219,654	150,374	183,899	22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3,343	24,669	9,845	8,362	-15
- 스낵류 (초콜렛포함)	21,344	19,382	13,071	20,687	58
- 과일채소 가공품	18,494	18,891	13,595	19,184	41
- 신선채소	7,794	7,952	5,805	5,703	-2
- 낙농제품 (치즈제외)	9,723	7,559	6,666	8,103	22
- 주류(와인과맥주)	5,312	5,815	3,841	4,629	21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3,794	3,682	2,391	2,818	18
- 견과류	1,042	3,550	1,050	676	-36
- 향신료	2,678	2,787	2,057	2,756	34
- 주스류	2,097	2,531	1,903	2,847	50
- 원예작물/절화	2,378	1,199	874	1,252	43
- 밤	992	3,225	1,631	966	-29
- 배	21,670	23,356	12,587	11,737	-7
- 포도	900	1,088	943	777	-18
- 딸기(신선)	36	9	9	0	-
- 인삼(뿌리)	697	733	553	536	-3

자료: USDA BICO Report

4. 경제전망

- 12월 연말 소매 판매량을 살펴보면 금융 위기이전의 수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됨. 11월초부터 12월 25일 성탄절까지 기간 동안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됨. 지난 2008년에는 6%나 급락했지만 지난해에는 4%, 그리고 올해는 5.5%늘었음. 5년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또한 금액으로는 지난 2007년 보다 2백억 달러 정도 늘어난 5천 8백 40억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봄
-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됐으며, 실업률은 상향조정되었다고 함. 미국 연준의 11월 공개 위원회(FOMC)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미국정부가 경제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밝혀졌음. 이 공개위원회에서는 미국 경제가 기대보다 느리게 회복하고 있어 6000억 달러의 추가 양적완화(QE2)를 결정한 바 있음
 - 실질 GDP 성장률, 2011년 까지 경제회복이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11년 성장률, 6월 회의 3.5~4.2% 전망에서 11월 회의 3.0~3.6%로 대폭 하향조정)
 - 실업률, 2012년까지 고실업률 해소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 (2011년 성장률, 6월 회의 8.3~8.7%로 9%하회에서 11월 회의 8.9~9.1% 9%대 전망)
 - 물가, 개인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1.0~1.7%상승 전망 (식품과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2011년 후반 또는 2012년에 정상화될 전망)
- 투자은행들, 경제성장률은 연준보다 낮고 실업률은 비슷한 전망
 - 경제 성장률은 연준 전망보다 낮게 전망
 - 2011년과 2012년 모두 경제 성장률은 3% 미만으로 전망
 - 골드만 삭스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으로 2011년 2.2% 성장 전망
 - 또한 실업률은 연준 전망보다 높게 전망
 - 2011년 실업률은 다소 개선되지만 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골드만삭스는 2011년에 10%에 달할것으로 가장 부정적인 전망 발표
- 월스트리트 저널, 57명의 경제학자들 경제 전망
 - 경제 성장률, 2011년 2.9% 성장, 실업률, 2011년 말 8.9% 성장 전망
- 2011년 미국 경제 동향 예상
 - 소비자들, 2011년도 저성장 지속으로 소비 증대를 나서는데 주저할 전망
 - 저성장기의 소비자들은 소비보다 저축, 절약, 필수품만 구입등과 같은 소비행태를 보일 전망
 - 미국인들, 실업률 하락해야 경제 회복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실업률이 높으면 소비 지출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

해외시장동향	홍콩	홍콩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 홍콩 식품 수입동향

- 홍콩은 국토면적이 작고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10년 11월까지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14,07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15.9%가 증가했으며, 기타 육류 및 내장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과일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있음
 - 품목별로 수입액이 고루 증가했으며, 유제품과 곡류가 가장 크게 증가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일본, 태국 등이 있으며, '10. 11월 까지 수입액은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하면서 US2,930백만불로 가장 많으며, 특히 미국은 육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41.2% 증가한 2,346백만불 집계됨
 - '10. 11월까지 한국산 수입액은 US17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8% 증가

□ 홍콩 생산동향

- 홍콩 농수축산물 연간 생산액은 약 US\$70백만불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홍콩 정부에 의한 농수축산물 생산액은 연간단위로만 집계·공개되고 있음
 - '09년 생산액은 HK558백만불로 전년 생산액 HK687백만불대비 23.1% 감소함
 - 주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채소류, 가금류, 가축류(돼지)가 있으며, '09년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 대비 각각 2.4%, 가금류 53.7%, 6.2%의 비중을 차지함

□ 기타 이슈

- 홍콩 자치정부는 쇠고기 가격 안정세를 위해서 중국 Haoyue Group으로부터 냉장 쇠고기 수입을 허가하기로 밝혀, 중국 저가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전망됨(12.7)
- 태국 바트가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태국쌀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어 홍콩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국쌀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12.16)

2. 시장동향

□ 생산동향¹⁾

- 홍콩은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농경지가 협소하며, 다만 홍콩 신계(New Territory) 서북부 지역에서 일부 채소류 생산과 가금류 사육이 이루어짐
- '09년말 기준 2,600개의 농장(farm)과 약 4,700명의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년 대비 농장수는 100개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200명 감소
- 2009년말 기준 채소, 화훼, 과수, 작물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각각 314ha, 156ha, 266ha, 22ha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홍콩 정부에 의한 농수축산물 생산액은 연간단위로만 집계·공개되고 있으며, '09년말 생산액은 HK558백만불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하였음
- 생산액 구성 품목은 작물(crop), 가축(livestock), 가금육(poultry)으로 각각 236, 146, 176백만불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11.8%, +42.4%, -22.1%의 변동을 보임
- 일일 평균 생산량은 채소류, 가금류(닭), 가축류(돼지)가 각각 44톤, 9,600마리, 230두 정도임
- '09년 홍콩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 대비 채소류 2.4%, 가금류 53.7%, 가축류(돼지) 6.2%의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와 가축류는 전년대비 비중이 감소했으나 가축류는 생산액 증가로 인해 7.7%P 증가

□ 도매시장 현황

- 홍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은 크게 4곳으로 웨스턴, 청사완, 청사완(가금류), 북부 도매시장이 있음
- 시장규모는 청사완 도매시장이 가장 크나, 웨스턴 도매시장은 가금류를 제외한 채소, 과일, 생선류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1) 출처 : 농림수산보호부(AFCD) '08/'09년 농업동향 자료

- 청사완(가금류)과 북부도매시장은 각각 가금류와 채소류 전문 도매시장으로 매년 취급물량은 줄어들고 있음
- 공영 도매시장 외에 야우마테이 과일 도매시장(Yau Ma Tei Fruit Wholesale Market)이 있음
 - 야우마테이 시장은 1960년대에는 규모가 매우 컸으나 청사완 도매시장 설립(1965) 이후 채소와 생선류가 빠져나가면서 과일 전문도매시장이 되었음
 - 과일 점포수 : 230-240개

□ 도매가격 동향²⁾

- 홍콩은 도매시장에서 취급되는 품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도매가격 동향은 농수산보호부(AFCD)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동향으로만 공개되고 있음
- 가축류 및 가금류 '10.11.29일 및 12.29일 도매시장 일일 공급량 및 가격동향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음
 - 돼지와 소는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 의해 제공되는 수치로 전일 도살되어 해당일에 공급되는 물량 기준임
 - 닭은 청사완 가금류 도매시장에서 취급된 물량과 가격임

< 가축류 및 가금류 도매시장 공급량 >

(단위 : 두, 두, 마리)

구 분	돼지(live pig)		소(live cattle)		닭(chicken)	
	'10.11.29	'10.12.29	'10.11.29	'10.12.29	'10.11.29	'10.12.29
중국(Mainland)	4,623	4,059	84	73	7,000	7,000
홍콩(local)	227	276	0	0	11,633	8,550
합 계(Total)	4,850	4,335	84	73	18,633	15,550

- 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소는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반입되는 반면, 닭은 홍콩 자체 반입물량이 중국보다 많음

2) 출처 : 홍콩농수산보호부(HK AFCD) 일일 도매동향 자료

※ 단위 참고 : Picul≒60.48kg, Catty≒600g

< 가축류 및 가금류 도매시장 가격 >

(단위 : HK\$/Picul, HK\$/Picul, HK\$/Catty)

구 분	돼지(live pig)		소(live cattle)		닭(chicken)	
	'10.11.29	'10.12.29	'10.11.29	'10.12.29	'10.11.29	'10.12.29
중국(Mainland)	1,177	1,233	2,360	2,360	14.3	22.8
홍콩(local)					13.8	22.6

- 닭 도매가격은 보통 중국산이 홍콩산보다 높게 거래됨
- 12월에는 겨울철 및 연말 수요증가로 육류 및 가금류 가격이 모두 증가하였음

○ 주요 채소류 '10.11.29일 및 12.29일 도매가격동향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음

- 청사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중량 및 고품질 채소류의 가격기준이며, 11월 대비 12월에는 연말연시 시즌 등 수요증가로 평균가격이 증가하였음

(단위 : HK\$/Catty)

종류	'10.11.29	'10.12.29
양배추(green cabbage)	2.0	2.7
감자(potato)	4.2	4.1
시금치(spinach)	3.1	4.8
토마토(tomato)	4.0	4.5
배추(chinese lettuce)	1.6	2.5
브로콜리(broccoli)	6.4	6.5

□ 소매가격 동향³⁾

- 소매가격 동향은 정부가 홍콩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참고하여 식품류 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10. 11월 식품류 전체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0%가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증가폭은 없음
- 세부 품목으로는 채소 및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으나 채소류는 전월대비 9%이상 하락하여 11월에는 안정세를 회복함

3) 출처 : 홍콩통계청(HK CSD) CPI(Consumer Price Index) 3월 보고서 자료

< '10.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

구 분		'10. 10월 대비 증감률(%)	'09. 11월 대비 증감률(%)
전체(All Item)		0.3	3.4
식품류 전체(FOOD)		0.0	4.0
1	외식류(Meals bought away from home)	0.2	2.1
2	쌀(Rice)	0.0	0.1
3	기타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Other cereals and cereal preparations)	0.2	-2.3
4	빵, 케익, 비스킷류(Bread, cakes, biscuits and puddings)	0.6	4.8
5	돼지고기(Pork)	2.3	2.1
6	소고기(Beef)	2.0	3.3
7	가금류(Poultry)	1.4	6.9
8	냉동 육류(Meat, frozen)	0.4	3.9
9	캔 육류(Meat, canned)	-5.2	-8.0
10	기타 육류(Meat, others)	2.0	5.2
11	신선 채소류(Fresh vegetables)	-9.6	6.0
12	가공 채소류(Processed vegetables)	0.9	7.5
13	신선 과일류(Fresh fruit)	0.8	12.8
14	가공 과일류(Processed fruit)	4.1	12.5
15	레토르트 식품(Dairy products)	1.5	5.9
16	계란(Eggs)	2.4	1.1
17	식용류(Edible oils)	0.8	-2.4
18	탄산음료(Carbonated drinks)	-3.3	-2.5
19	기타 음료류(Other non-alcoholic beverages)	-0.1	0.3
20	설탕(Sugar)	1.1	12.2
21	사탕 과자류(Confectionery)	0.0	5.5
22	양념류(Flavourings and additives)	-1.7	-2.9
23	식품 기타(Food, others)	0.8	4.0

4. 농산물 수출입동향⁴⁾

□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개요

○ '10년 11월까지 홍콩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14,074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9%가 증가했으며, 기타 육류 및 내장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과일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이음

- 품목별로 수입액이 고루 증가했으며, 유제품과 곡류가 가장 크게 증가함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 목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	-	전 체	12,424,830	13,587,872	14,073,547	15.9
1	012	냉장/냉장/냉동의 기타 육류 및	3,141,838	3,256,229	3,304,575	12.8
2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1,537,196	1,976,580	2,114,644	24.7
3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수산물	1,150,115	1,306,871	1,367,910	18.9
4	098	기타 가공식품류	881,322	967,094	1,038,644	20.3
5	034	신선/냉장/냉동의 어류	560,630	582,208	629,668	18.9
6	111	비알콜 기타 음료	427,456	555,805	576,873	6.6
7	022	우유, 크림, 유제품	395,204	496,190	566,299	25.7
8	017	가공육류 및 내장	462,739	520,375	517,614	11.1
9	011	신선/냉장/냉동의 소고기	357,088	472,031	471,126	10
10	035	건조/염장/훈제의 어류 및 펠렛	453,660	399,055	422,105	16.1
11	048	녹말 등의 곡류	332,840	337,718	371,202	25.4
12	139	돼지고기	279,732	331,199	310,987	2.6
13	042	쌀	256,855	277,432	264,322	8.5
14	037	가공 어류, 갑각류, 연체류 및	244,768	240,742	257,021	22.9
15	056	가공 뿌리/덩이채소류	152,757	176,386	164,720	2.4

4) 출처 : 홍콩무역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미국, 브라질, 일본, 태국 등이 있으며, '10. 11월 까지 수입액은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하면서 US2,930백만불로 가장 많으며, 특히 미국은 육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41.2% 증가한 2,346백만불 집계됨

- '10. 11월 3대 수입국의 주요 수입품목

- 중국 : 비알콜 음료류(17.0%), 기타 육류 및 내장(14.9%), 돼지고기류(10.6%) 등
- 미국 : 기타 육류 및 내장(38.5%), 과일 및 견과류(32.3%), 갑각류 및 연체류 등 수산물(5.7%) 등

- 브라질 : 기타 육류 및 내장(80.6%), 소고기(13.3%), 건조/염장의 어류(2.6%) 등

- '10. 11월까지 한국산 수입액은 17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8% 증가

(단위 : US천불, %)

순위	국가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합 계	12,424,830	13,587,872	14,073,547	15.9
1	중국(CHINA)	2,654,461	2,922,785	2,929,713	9.4
2	미국(USA)	1,647,574	1,934,022	2,346,459	41.2
3	브라질(BRAZIL)	1,460,513	1,605,421	1,309,014	-11.3
4	일본(JAPAN)	616,021	717,345	828,916	32.1
5	태국(THAILAND)	740,624	844,795	706,462	-7.7
6	호주(AUSTRALIA)	614,741	668,821	575,708	-2.6
7	인도네시아(INDONESIA)	409,422	472,516	530,835	28.6
8	캐나다(CANADA)	395,903	359,723	396,987	23.1
9	네덜란드(NETHERLANDS)	289,034	310,536	322,581	15.4
10	이란(IRAN)	159,883	145,636	307,512	218.7
11	뉴질랜드(NEW ZEALAND)	255,439	261,272	290,765	22.2
12	독일(GERMANY)	292,264	279,845	256,482	4
13	칠레(CHILE)	178,584	226,947	216,395	2
14	말레이시아(MALAYSIA)	176,638	195,225	196,789	11.5
15	대만(TAIWAN)	161,233	175,525	191,878	22.8
18	한국(KOREA REP)	124,741	152,426	173,554	29.8

① 홍콩 과일 및 견과류 수입개요

- '10년 11월까지 홍콩 과일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체 US2,233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4.6%가 증가했으며, 개별 과일 중에는 포도, 견과류 중에는 파스타치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과실류보다는 견과류 수입이 증가했으며, 견과류 중에는 파스타치오, 개별 과일 중에는 오렌지의 증가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 US천불, %)

S.L.T C 품목	2008년 금액	2009년 금액	'10. 1-11월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전체(TOTAL)	1,664,187	2,087,191	2,233,201	24.6
05778 신선/건조의 파스타치오	234,440	272,917	422,783	107.1
05774 신선/건조류 아몬드	141,054	232,779	257,985	50.3
05798 기타 신선과실류(리치, 롱안, 두리안 등)	231,993	293,454	230,052	-14.9
05751 신선 포도	180,525	251,007	225,649	-3.9
05711 신선/건조 오렌지	147,322	140,961	165,336	22.5
05793 신선류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107,282	133,548	163,889	35.4
05779 신선/건조의 기타 너츠류(믹스너츠 제외)	91,185	128,572	129,537	40.8
05740 신선 사과	86,788	96,071	105,925	19.3
05797 신선 아보카도/구아바/망고/망고스틴	71,410	114,746	92,746	-14.6
05776 신선/건조의 월넛	11,516	60,365	77,742	64.7

-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이란, 태국, 칠레 등이며 전년 동기대비 이란은 파스타치오 등 견과류와 무화과 등 과실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23.7%로 큰폭 증가

(단위 : US천불, %)

순위	국가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전 체	1,664,187	2,087,191	2,233,201	24.6
1	미국(USA)	619,789	844,334	924,857	34.3
4	이란(IRAN)	158,511	141,979	302,614	223.7
2	태국(THAILAND)	254,303	342,222	262,218	-18.3
3	칠레(CHILE)	118,820	171,429	164,959	2.6
5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81,433	88,532	121,091	40.9
16	한국(KOREA REP)	5,880	9,778	9,263	18.1

② 홍콩 채소류 수입개요

- '10년 11월까지 홍콩 채소류 수입액은 전체 US409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 개별 채소류는 양배추류, 버섯류, 감자류, 상추류, 옥수수 등 순임

- 패스트푸드 칩스 재료로 사용되는 냉동가공 감자류는 전년대비 30.4% 감소함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	전체(TOTAL)	401,643	431,291	408,794	4.1
1	05453	신선/냉장의 양배추 및 유사 채소류 (CABBAG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86,427	87,267	78,367	-1.6
2	05459	신선/냉장 기타 채소류 (FRESH OR CHILLED VEGETABLES, NES)	63,501	60,247	58,191	5.9
3	05613	건조 버섯류 (MUSHROOMS & TRUFFLES, DRIED, NOT FURTHER PREPARED)	33,488	36,638	35,926	11
4	05661	냉동가공 감자류 (POTATOES PRESERVED NOT BY VINEGAR, FROZEN)	26,527	41,950	27,652	12.7
5	05676	비냉동 가공 감자류 (POTATOES PRESERVED NOT BY VINEGAR, NOT FROZEN)	21,678	26,906	27,450	-30.4
7	05679	가공 기타 채소류 (OTHER VEGETABLES PRESERVED NOT BY VINEGAR, NOT FROZEN)	18,507	21,794	21,306	8.3
6	05469	냉동 기타 채소류 (OTHER VEGETABLES & MIXTURES OF VEGETABLES, FROZEN)	25,994	24,330	20,250	-8.9
9	05454	신선/냉장 상추류 (LETTUCE AND CHICORY, FRESH OR CHILLED)	13,500	13,753	15,999	30.5
8	05458	신선/냉장 버섯류 (MUSHROOMS AND TRUFFLES, FRESH OR CHILLED)	10,227	14,803	15,776	27.3
10	05477	신선/냉장 상추류 (LETTUCE AND CHICORY, FRESH OR CHILLED)	13,500	13,753	15,776	27.3

- 채소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한국은 전년대비 29.9%가 증가

(단위 : US천불, %)

순위	국 가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전 체	401,643	431,291	408,794	4.1
1	중국(CHINA)	223,466	225,386	216,821	5.9
2	미국(USA)	79,992	99,424	83,555	-9.9
3	일본(JAPAN)	18,345	17,696	19,724	25.6
4	태국(THAILAND)	17,490	13,319	15,054	24.6
5	한국(KOREA REP)	3,061	10,738	11,479	29.9

□ 홍콩 한국 농수축산물 수입개요

- '10년 11월까지 한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US17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29.8%가 증가했으며, 자당류가 전체의 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이어 인삼류, 연체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 과일류 등이 있음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10.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 증감율
-	-	전 체	124,741	152,426	173,554	29.8
1	06129	자당류	41,176	48,599	61,635	39.7
2	29242	인삼류	27,072	30,376	24,580	-4.8
3	036	냉장/냉동/건조/열장의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5,783	7,682	15,100	144.4
4	098	기타 가공식품	11,195	12,734	14,138	27.3
5	062	사탕류	11,189	10,670	9,532	-3.2
7	05458	신선/냉장 버섯류	313	6,874	8,671	68.3
6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4,503	7,917	7,470	21.7
8	048	녹말 등의 가공 곡류	4,860	5,000	5,556	23.7
9	111	비알콜 음료류	2,705	3,270	4,960	76.8
10	035	건조/염장/훈제의 어류 및 필렛	4,215	3,174	3,420	8.8

□ 한국산 주요품목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10.11월) 61,635천불 (전년 동기대비 39.7% 증가)
 - 올해 국제 자당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물량 대비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 인삼류 : ('10.11월) 24,580천불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
 - 인삼공사 하반기 홍콩법인 폐쇄 및 중국이전에 따른 재고물량 처리 등으로 인삼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상반기 재고물량 처리 후 예년수준으로 수입량이 회복되면서 9월 감소세(11% 수준) 대비 감소량은 완화되었음
 - 감소세는 완화되더라도 전체 수입물량은 연말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무척추류 등 수산물 : ('10.11월) 15,100천불 (144.4% 증가)
 - 수산물은 홍콩 상반기 건조굴 수요증가에 따른 굴 수입증가 및 해삼류 수입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증가하였음

- 특히, 국내 가공전복(캔류)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업체간 컨테이너 전복 수출이 최초 성공되면서 70만불이 수입되면서 수산물 증가세에 기여하였음
- 가공식품 : ('10.11월) 14,138천불 (27.3% 증가)
 - 가공식품류는 한국 드라마 등을 바탕으로 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수 및 라면 등 면류와 떡볶이 떡 등 품목이 고루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5%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초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냉장버섯류 : ('10.11월) 8,671천불 (68.3% 증가)
 - 한국산 팽이버섯 및 새송이버섯이 현지 유통업체 및 슈퍼마켓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68%이상 증가하였음
- 비알콜음료류 : ('10.11월) 4,960천불 (76.8% 증가)
 - 식이섬유, 차 음료 등 다양한 음료제품이 수입되면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식이섬유 음료 현지 에이전트의 마케팅 강화로 음료수입이 크게 증가함

□ 홍콩 농수축산물 재수출개요

- 홍콩은 자체 생산량이 적고, 교역이 자유로워 수입물량의 상당부분을 재수출하는 산업구조 특성을 지님
- '10. 11월 식품류 재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3%가 증가한 US3,857백만불로 전체 수입액의 약 27.4%에 해당함
 - 재수출 품목은 주요 수입품목과 유사한 육류 및 과일류가 해당됨

(단위 : US천불, %)

순위	SITC 코드	품 목	2008년	2009년	'10년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	-	전체(TOTAL)	3,428,231	3,803,881	3,856,543	13.3
1	012	신선/냉장/냉동의 기타 육류 및 내장	1,551,952	1,598,096	1,649,995	14.7
2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598,335	959,749	962,599	13.4
3	036	냉장/냉동/건조/염장의 수산물 갑각류, 연체류 및 무척추류	143,571	146,706	155,109	19.4
4	098	기타 가공식품류	109,595	120,263	130,300	19.1
5	035	건조, 염장 어류	147,850	126,344	107,050	-8.3

- 주요 재수출국으로는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이 있으며, 특히 대만과 미국의 재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중국, 베트남 등은 40%이상 증가하였음

(단위 : US천불, %)

순위	재수출국	2008년	2009년	2010년 1-11월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	합 계	3,428,231	3,803,881	3,856,543	13.3
1	중국	1,914,973	1,623,331	2,064,454	40.2
2	베트남	217,501	577,344	722,354	40.5
3	대만	592,519	903,584	348,412	-55.6
4	마카오	269,594	304,910	316,741	14.1
5	미국	127,121	118,126	99,691	-6.6

4. 경제동향⁵⁾

□ 경기 동향

- '10. 10월까지 홍콩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함
 - 수출증가 원인은 전년도에 기준치가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액이 낮았기 때문이며, 증가세는 8월 17% 수준에서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10. 11월 실업률은 4.1%로 금년 최저치이며, 홍콩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취업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인 '08년 1분기 3.3%와 비교시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10.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대비 2.9%가 상승하였으며,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수치가 10월 이후로 다소 수그러지고 있음
 - 전년 비교시 전기, 가스, 물 등 공공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5) 출처 : 주홍콩영사관 홍콩 경제/정치동향 자료

□ 주요 경제 정세

○ 홍콩, 2011년도 수출 둔화 전망('10.12.17)

- 홍콩 무역발전국(HKTDC) 보고에 따르면, 외부 수요 감소·원가 상승 등 영향으로 홍콩의 2011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은 8%(2010년도 : 20% 예상) 까지 하락할 것이며, 수출 주문리스트 가격은 최소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9년 연속 中 최고 경쟁력 도시 선정('10.12.21)

- 홍콩이 9년 연속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선정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으며, 다만 홍콩의 성장 잠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조만간 1위 자리를 상하이 등 중국 내 다른 도시에 내줄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음

해외시장동향	동남아	싱가포르 aT
--------	-----	---------

1. 현지시장 포커스

1.1. 싱가포르

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가들에서 홍수 및 침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대부분의 신선야채를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야채 소매가격이 상승, 연말연시를 앞둔 싱가포르 물가당국에 비상이 걸림. 통상적으로 연말과 음력설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의 상승이 발생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주변국가들의 홍수 및 침수피해로 10월 중순부터 신선야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동 사태가 2010년 16%로 전망된 GNP의 성장률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나. 까르푸(Carrefour)의 동남아 점포매각 발표로 촉발된 대형 유통업체들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까르푸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점포매각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 싱가포르 1위 유통업체인 FairPrice는 신규점포 개점 및 주변국가 업체와의 MOU 등을 통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위 업체인 Cold Storage는 북부지역에 8개 점포를 보유한 MCP Supermarket를 인수하며 점포수 확장에 나섬. Cold Storage는 인수한 8개 점포를 계열사인 Shop N Save 매장으로 재구성 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 Strait Times, AVA)

1.2. 말레이시아

가. 세계 2위의 팜유 생산국, 1위의 팜유 수출국인 말레이시아가 팜유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 (MPOC)의 Lee Yeow Chor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촉진단은 이집트에서 개최된 Palm Oil Trade Fair & Seminar (POTS Egypt, 11월7~9일)에 참가하여, 말레이시아 팜유가 이집트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치하하며,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함. 말레이시아 13개 업체가 출품한 동 행사에는 영국 등 250여명의 학자들이 초청이 되어 팜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

나. 또한, 대 EU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장관급 홍보단을 구성하여 EU가 제정한 재생에너지지침 (Red Energy Directive : RED)와 관련하여, 팜유의 무해성을 적극홍보 함. 브뤼셀의 EU 사무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농장곡물부 Bernard Dompok 장관 및 인도네시아의 농림부 Bayu Krisnamurthi 차관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팜유농장과 관련하여, EU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한 후, “유지가능한 생산”을 위해 RSPO를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EU에서도 RED규격과 일치된 단일 인증제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함

다. 1위 베트남에 이어, 세계 4위의 후추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후추 농민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무 및 카카오로 작물을 변경하고 있어, 2011년에는 후추의 수급불균형 및 이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옴. Kochi에서 개최된 국제후추협회 (IPC)의 38차 연차총회에서, IPC의 V.K. Kurian 총재는 병충해 및 작물전환 등으로 전세계 생산량이 2010년의 32만톤에서 2011년에는 30만톤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 중 2.5만톤을 감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추 농민들에 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함

(자료 : Bernama, The Star 종합)

1.3. 태국

가. 까르푸의 동남아 점포매각과 관련하여, 까르푸가 태국 42개 점포를 (프랑스계 Casino그룹의 현지법인인) Big 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태국 유통업체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EUR 8.68억 (US\$ 11.8억) 을 제시하여 까르푸의 태국점포들을 인수하게 된 Big C는, 단숨에 42개 점포를 확보하여 태국내 총 111개 점포를 보유한 1위 유통업체로 부상했으며, 점포수 및 매장면적에서 87개 점포를 보유한 Tesco Lotus를 2위로 밀어냄. 전문가들은 사세확장을 이룩한 Big C의 2011년 매출이 THB 1,000억 (US\$ 33.5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

나. 동 인수와 관련하여, 11월 16일 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1위인 Tesco가 시장점유율 41%, Big C 및 까르푸는 시장점유율 각기 24% 및 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밝힘. Big C가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인수가격 (연간매출의 120%, 세전이익의 13배)을 제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속에서, 납품업체들은 Big C가 구매규모라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어 가격인하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함. 태국 점포 매각 (US\$ 11.8억)에서, 동남아 전체 점포매각 예상대금 (US\$ 10억)을 초과 달성하게 된 Carefour는 전격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점포매각을 중단하여, 일관성 없는 계획에 대하여 비난을 받음

다. 다른 소식으로, 현지 충전업체인 Serm Suk를 인수하려는 다국적기업 Pepsi Cola의 인수전에 돌연 백기사가 출현함. Serm Suk는 PepsiCo가 원액가격을 인상한 것에 반발하여 PepsiCo 및 Seven-Up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강행하였으며 ; 대주주인 PepsiCo (지분율 24.9%)는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 덧붙여, PepsiCo는 주식매입을 통한 적대적인수를 공시함. 당황하던 Serm Suk의 Somchai 대표이사에게, 오랜 친구 사이인 Thai Beverage의 Charoen 회장이 더욱 높은 주식매입가격을 제시하며 백기사로 나섬. 태국최대의 갑부 (주류 및 부동산) 인 Charoen회장은 PepsiCo가 제시한 주당 THB 29.-를 45% 상회하는 주당 THB 42.-를 제시함

라. 이외에, 통합 시장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Coca Cola 및 Pepsi Cola는, 급격한 신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20%를 기록하고 있는 Big Cola의 부상에 긴장하고 있음. Big Cola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페루의 Aje Group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라이선스로 부재로 인한 20% 저렴한 가격으로 2010년 시장점유율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시장점유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음. Big Cola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에 US\$ 5천만을 투자하여 2개 충전공장 및 50여개 유통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Big Cola는 태국에 1개 충전공장 및 10개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마. 농산물동향 8월에 보고한 일본+태국 합작의 육계도축 및 가공공장인 GFPT Nichirei (GFN) 가 시운전 기간을 마치고, 12월 21일 준공식을 가짐. THB 22억 (US\$ 7.5천만) 이 투자된 동 공장은 10만마리/일, 1,500톤/월의 가공능력을 갖추었으며, 허가조건에 따라 일본 및 한국 등への 수출을 통하여 2011년 THB 30억 (US\$ 1억) 을 목표로 함

(자료: Bangkok Post, The Nation, Bloomberg, Financial Times, Reuters, 종합)

1.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의 야심찬 농업계획들이 다방면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먼저, 인

도네시아 설탕 및 밀 협회의 Natsir Mansur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올해의 설탕 생산량이 목표대비 30만톤 미달된 200만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힘. Natsir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2010년 설탕수요가 2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8월부터 설탕수입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극장대응으로 9월말에 면허가 발급되어 U\$ 530/톤이 아닌 U\$ 850/톤에 수입하게 되었다고 밝힘

나. 또한, 쌀 자급목표와는 달리, 쌀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가격이 9~13% 폭등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쌀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하였음. 정부는 국가유통청(Bulog)의 쌀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입되는 재고보유용 쌀에 대하여 내년 2월까지 임시적인 관세유예를 의결하였음. Bulog의 Sutarto Alimoeso 청장은, 안전재고 연말목표가 150만톤이며, 현재 수입계약이 완료된 물량은 85만톤이며, 추가계약이 필요한 물량이 20만톤이라고 밝히, 재고상황이 심각함을 전하였음

다. Papua섬 주민들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를 달성하게 해준다고 선전되어온 Merauke 식량에너지지구 (MIFEE)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게 됨. 농림부 Suswono 장관이 MIFEE 프로그램의 기공식에 참석하며 사업성공을 위한 강한 정부의지를 표명한 반면 ; 11월 25일, Papua 주면연대는 MIFEE가 토지를 갈취하여 밀림을 파괴하고 성지를 제거하려는 기업과 정부가 연대한 음모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기후협약과 인도네시아의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감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MIFEE의 개발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자료 : Antara, Jakarta Post, Tempo, Daily Inquirer, Intellasia, VNN, VOV 종합)

1.5. 필리핀

가. 필리핀 Aquino 3세 대통령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Hacienda Luisita 사탕수수 농장의 중국업체에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농장농민단체인 Ambala에서 반대를 하고 나섬. Ambala는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Hacienda Luisita와 중국 최대의 음료업체인 Wahaha Group 사이의 계약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동 협상에 상공부의 Cristino Panlilio 차관이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탄핵 등을 요구함. 전임 Arroyo 대통령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장농민들은 농장에 대한 지분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농민들은 동 임대계약이 자신들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상공부 (DTI) 는 설탕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연말까지 내수시장에서의 가격제한을 해제하고, 2011년초 인도물량 30만톤에 대한 설탕수입허가를 요청함. 상공부 Gregory Domingo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은 20만톤의 대미쿼타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부족으로 내수부족 11만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설탕수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30만톤의 설탕수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대미쿼타 유지를 위해 설탕을 수입해서 재수출해야하는 필리핀 ; 그리고 수출계약이행을 위하여 태국 및 브라질에 설탕공급을 타진 중에 있는 호주 최대의 설탕수출업체인 QSL 등의 상황에서 전세계 설탕부족 실태가 느껴짐

(자료 : GMA News, Malaya, Reuters 종합)

1.6. 베트남

가. 농림농촌진흥부 (MARD)는 11월 31일 현재 베트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US\$ 172.3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연간목표를 상회하였다고 발표함. 쌀은 물량 660만톤, 금액 US\$ 30.8억을 기록하였으며 ; 고무는 67.2만톤, 금액 US\$ 20억을 기록하였으며 ; 카슈(cashew)는 US\$ 10억, 커피는 US\$ 17.4억 등을 각기 기록하여 효자상품군을 이어갔다고 밝힘

나. 10월말까지 원료부족으로 수산물 수출의 격감이 전망되고, 홍수피해에 따른 생산감소 및 연말의 대형구매 감소로 농산물 수출의 감소가 전망되었던 것 등과는 달리 ; 수산물 쪽에서는 새우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판정 확정 및 주력 상품인 tra & basa 메기류에 대한 WWF의 red (don't buy) 분류가 악재로 등장하였으며 ; 농산물 쪽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결정이 호재로 작용하여 쌀 수출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당국이 수출자제를 요청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다. 베트남은 11월 중순 현재, 쌀 680만톤을 수출완료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이외에 태풍 및 홍수피해를 겪은 필리핀,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의 추가 공급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VFA는 올해 쌀 수출이 700만톤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힘. 당초 수출둔화를 고려하여 지도가격 US\$ 445 (25%) ~ US\$ 475 (5%)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발표했던 VFA는, 수출가격이 US\$ 480 (25%) ~ US\$ 540 (5%)를 상회하면서 단속을 중단하였으며 ; 정부는 수출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Decree No. 109의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었음. Decree 109는 수출계약량의 10%를 안전재고로 보유토록 하는 규정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았었음

라. 다른 소식으로,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비료협회의 요청에 따라, 자국 농경분야의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비료수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 쌀 품질향상을 위한 베트남 주요 쌀 생산지역인 메콩 삼각주에서 정미소 및 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잇따르고 있으며 ; Dong Nai 성에서는 U\$ 5천만이 소요되는 농산, 임산 및 수산 양식의 바이오기술센터 건립이 착공되었음

마. 커피는 호우피해로 11월 30일 현재,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116만톤을 기록하였지만,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피해로 커피의 국제시세가 폭등한 점 (11월 9일 U\$ 2,098.-/톤의 최고치를 기록함)에 힘입어, 금액은 U\$ 17.4억을 기록하는 기염을 보였음.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는 높은 국제시세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중 30~50만톤을 보관하여 연중수시 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리융자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자료 : Intellasia, VOV, VCCI, VFA, VNA, VNN, Bloomberg, Daily Inquirer 종합)

2. 농산물 수출입 동향

2.1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11 한국산 농산물 수입은 금액 U\$ 750만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29.9% 감소하였음. 그러나, 동 기록은 급격한 감소라기 보다는 10월에 많은 금액 (U\$ 1,070만)이 수입된 것에 따른 조정현상으로 ; 연평균 (11월현재 평균 U\$ 705만/월) 대비 약 6% 상회되는 금액 임. 대 싱가포르 수출금액은 11월 현재 누계 U\$ 7,751만을 기록하여, 2009년 총 수출금액인 U\$ 4,873만을 오래전에 상회하였음

나. 한국의 대 싱가포르 2010년 10월 및 2010년 11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USD)

	2010년 10월	2010년 11월	증감(%)
농산물	10,702,416	7,497,630	-29.9
전 분	106,648	105,485	-1.1
과실류	509,405	1,346,738	164.4
과즙음료	31,277	33,896	8.4
채소류	111,252	219,873	97.6
소오스류	102,409	58,741	-42.6
커피류	332,493	557,014	67.5
필터담배	3,359,551	1,516,109	-54.9
인삼류	30,297	11,343	-62.6
주 류	748,037	806,083	7.8
음 료	79,536	103,614	30.3
과자류	146,167	206,808	41.5
면 류	459,165	165,821	-63.9
국 수	71,525	51,187	-28.4
라 면	259,582	79,250	-69.5

(자료: kati.net)

2.2 동남아 국가

가. 11월 한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전분 (-8.5%), 채소류 (-39.7%), 식물성유지 (-99.1%), 효모류 (-20.7%), 연초류 (-4.8%) 등이 감소하였지만, 과실류 (233.5%), 버섯류 (8.3%), 사료 (64%), 소오스류 (46.7%), 커피류 (103.7%) 등이 증가를 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9.4%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베트남은 전분 (-50.4%), 식물성유지 (-53.1%), 유지가공품 (-51.3%), 연초류 (-4.4%) 등의 감소세를, 서류 (85.1%), 과실류 (145.2%), 채소류 (28.1%) 버섯류 (119.4%), 커피류 (47.1%) 등의 증가로 만회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22.7%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감 (1,862%), 채소류 (168.3%), 유지가공품 (307.7%) 등이 증가를 보이며, 전월대비 총금액이 18.7%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 태국은 과실류 (40.5%), 유지가공품 (73.2%), 사료 (82%) 등이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곡류 (-66%), 소오스류 (-19.7%), 인삼류 (-78.3%), 과자류 (-67.9%)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월대비 총수입금액이 53.3%의 급격한 감소를 기록함. 필리핀은 곡류 (56.4%), 두류 (-100%), 유지가공품 (-65.1%), 인삼류 (-63.8%), 커피류 (-18%) 등이 감소하였지만, 전분 (95.6%), 과실류 (118.2%), 채소류 (89.4%), 버섯류 (114.5%), 사료 (78.7%) 등의 분전으로, 전월대비 수입금액이 6.2%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나. 11월 총금액별로는 베트남이 22.7%의 증가세로, US\$ 1,645만을 기록하며 관할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 태국은 급격한 수요감소를 기록하며 US\$ 1,254만으로 2위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수입금액 US\$ 1,079만으로 3위를 유지하였으며 ;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소폭 상승하여 4, 5위를 기록하였으며 ; 싱가포르의 급격한 조정으로 최하위를 기록함

다. 감을 필두로 과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커피류 성장도 두드러짐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 싱가포르는 11월 현재 총액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9%를 기록. 태국은 연초부터 이어져오는 정국혼란과 불안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현상을 보임

라. 한국산 식품 수입 동향

	2010년 10월(USD)	2010년 11월(USD)	증감율(%)
말레이시아	7,951,725	8,696,969	9.4
베트남	13,398,395	16,446,224	22.7
싱가포르	10,702,416	7,497,630	-29.9
인도네시아	9,092,089	10,788,340	18.7
태국	26,845,837	12,539,742	-53.3
필리핀	9,085,724	9,651,442	6.2

(자료 : kati.net)

3. 경제 동향

3.1. 싱가포르

가. 호주 증권거래소(ASX) 인수 추진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 싱가포르 선물거래소(SMX)는 아시아의 2010년 현재 U\$ 1,577억에 이르고 있는 쌀 교역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쌀 선물환 시장의 개소 추진을 발표하여 또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음. FAO 및 IRRI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쌀 소비의 주요지역에 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물환시장의 개소를 환영하고 있으며, SMX는 일부 비평가들이 제기한 투명성제고를 위해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나. 지난 9월 프랑스의 Louis Dreyfus와의 기업합병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한 싱가포르의 Olam International사는 ; 11월 15일 아프리카 가봉에 U\$ 15.5억에 이르는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함. 정부투자회사인 Olam사의 Sunny Verghese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가봉의 비료공장에 U\$ 13억, 팜유농장에 U\$ 2.5억 등을 투자하게 되며, 2015년 매출의 25%를 아프리카에서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함

(자료 : Wall Street Journal,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종합)

3.2. 말레이시아

가. EU의 RED 규격제정 및 시행, 그리고 팜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는 11월 9일 “유지가능한 기법”으로 생산된 팜유를 인증해주는 Sustainable Palm Oil 인증마크를 발표함



나. RSPO의 Jan Kees Vis 회장은 발표문에서, 동 마크는 소비자들이 RSPO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우수한 팜유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며, 제품 구매시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게 됨. Unilever 및 Sainsbury 등의 주요 사용자, 생산자, 가공자, 판매자, NGO 등이 참여하고 있는 RSPO는 ; “지속가능한” 팜유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격 및 인증제도 도입으로 업계는 한층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함

다. 말레이시아 Terengganu 검역사무소 주변의 유희지를 가축수입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통합된 가축 수입, 검역 및 도축사업의 민-관 성공사례로 소개가 됨. 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부터 양과 소를 수입하여 번식 및 도축업을 하는 Kembar Teguh사는 최근 Terengganu 검역사무소와 부지 60 hectare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에 MYR 500,000 (US\$ 16만)을 투자하여 도축장을 건립하기로 함. 또한, 대학의 관련학과들과의 민-학-관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번식 및 도축 등과 관련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함

(자료 : Bernama, Australian Food News 종합)

3.3. 인도네시아

가. 11월 4일 인도네시아 경제업무조정장관인 Hatta Rajasa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2010년 추정 GDP는 US\$ 7,000억이며, 2014년에는 US\$ 1조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수출과 관련해서는 9월현재 US\$ 1,108억을 수출하였으며, 2010년 전체로는 US\$ 1,150억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나. 농림부 Suswono장관은, 인도네시아의 arabica커피가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 2011년에 진행예정인 농장재활성화프로그램의 대상에 기존의 팜유, 고무, 카카오 이외에 커피를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함. 인도네시아의 arabica커피는 Toraja, Gayo, Mandailing, Kintamani, Gores, Java 등의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의 부재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다. 12월 13일~14일 Nipa-Nipa에서 개최된 Syngenta Expo에 남 Sulawesi 행정부 관료들을 대동하고 참석한 Bantaeng의 Regent (≡왕자) Nurdin Abdullah는 옥수수(corn) 시장의 미래가 밝다며, 내년도에는 연간 160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한국과의 협력강화 등의 적극적인 시장개척노력을 주문함. 또한,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가격을 위해 농민들이 선금 70%를 지급해주는 주정부의 매입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함

(자료 : Antara)

3.4. 필리핀

- 가. 필리핀 최대의 견과류 및 주스 수출업체인 Profood International사가 동유럽 및 중국에서의 시장확대에 나섬. Agora Award 시상식장에서, Profood의 Justin Uy 대표는, 현재 전세계 40개국가에 U\$ 5천만을 수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동유럽 및 중국으로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Uy 대표는 농지개혁법으로 기업의 농지구매가 어려운 점을 타파하기 위해 필리핀 전역 30개소에 구매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5%는 수출되고 있다고 밝힘. 동유럽 및 중국 등의 견과류 및 주스에 대한 수입관세가 0%가 되어, 내년도에는 이들 시장의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함
- 나. 필리핀 최대의 F&B 그룹인 San Miguel사가 에너지 그룹으로의 전환을 완료함. San Miguel 맥주 (시장점유율 95%) 로 대표되는 필리핀 최대의 F&B 그룹인 San Miguel은, 오래된 사업다각화 계획의 일환으로, 맥주부문의 지분 48%을 일본의 Kirin사에 매각한 이후 신규 투자처를 찾았었으며 ; 11월 14일에는 4개 발전소 및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는 Global 5000 인수, 12월 15일에는 필리핀 최대의 정유사인 Petron Corporation 지분 68%의 인수를 완료하며 에너지부문 중심의 그룹으로 전환함.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Bataan의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San Miguel은 에너지부문 매출기여도는 60%로 바뀜
- 다. 필리핀 하원은, 국가 육류 검역원 (NMIS)의 요청에 따라, hot meat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상정함. NMIS는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축의 사체를 hot meat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hot meat를 취급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벌과금만을 부과할 수 있음. NMIS의 Jane Bacayo 원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새로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 동 법안은 농림부 (DA)와 NMIS가 수입고기의 급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이후 발의된 최초의 법안으로, 향후에 신규법안 또는 조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DA는 근시일 안에 수입 냉동고기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더욱 엄격한 지침을 고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자료 : Manila Bulletin, Daily Inquirer 종합)

3.5. 태국

- 가. 2010년 계속되는 정치소요, 정치불안 및 계엄령상황과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의 둔화를 겪어온 태국의 주류업체들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내수시장 2위의 Singha (점유율 35%) 는 지난 8월 영국 Premier League의 Manchester United 및 Chelsea와의 후원계약을 통하여 제품소개에 성공 영국 2,000여 레스토랑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박지성효과”로 한국진출에도 성공하였음. 1위의 Chang (점유율 55%)은 세계 40여개국에 수출한다는 단순 자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3년 이내 U\$ 2.5억 수출을 목표로 Premier League의 Everton과의 후원계약을 연장함
- 나. 태국 상무부는, 경쟁국인 베트남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2010년 쌀 수출이 850만톤을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음. 11월 25일에 개최된 상무부 주최의 관련 세미나에서, 올해의 추정치 및 2011년도에는 쌀 수출이 850~950만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저가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들이 물량이 아닌 품질에 신경써주기를 당부함. 상무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은, 2006년 이후 최대 홍수로 농지피해가 1,100만 rai에 이르고 있어, 태국 전체 생산량의 70%를 감당하고 있는 10~12월의 쌀 수확량이 목표 대비 7% 감소한 2,170톤일 것으로 우려 표시
- 다. 태국의 대표적 농식품 기업인 Charoen Pokphand (CP) 그룹 (2009년 매출 약 U\$ 200억, 2010년 매출전망 U\$ 240억) 이 2011년도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함. CP 그룹의 Sarasin Viraphol 수석부사장은 12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CP그룹은 내년도에 U\$ 13.7억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투자금 중 U\$ 5억은 중국 하이난성에서의 대형물 건립에 투자가 되며; 이외에 U\$ 6.7억은 중국 절강성의 유기농 야채 생산 및 출하단지 사업, U\$ 2억은 베트남의 사료공장, 냉장유통시설 및 가공류 가공시설 등에 투자된다고 밝힘
- 라. 주변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수출에 차질을 빚어온 태국이, 쌀 수출촉진을 위해 상공부 Porntiva Nakasai 장관을 단장으로하는 수출촉진단을 12월 14일 ~ 18일에 걸쳐, 주요 소비지역인 홍콩 및 마카오에 파견함. 태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저가공세, 그리고 태국 바트화의 강세 등으로 수출이 위축된 상태로 ; Porntiva 장관은 동 파견단의 주요 목적은 우수수입상들과의 유대강화 및 태국이 원조 “jasmine”쌀 생산국가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자료 : The Nation, Bangkok Post, VOV 종합)

3.6. 베트남

가. 베트남 식품협회 (VFA)는 2011년도의 쌀 수출가격이 올해에 비해 15~20%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힘. VFA는 쌀 수출가격의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는 이유로 ; 이미 85만톤을 구매하였지만 추가적으로 50만톤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쌀 부족사태 ; 2011~2013년에 걸쳐 매년 최소 150만톤의 확정물량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필리핀 ; 정부 보유재고 200만톤의 방출과 홍수피해로 생산량이 격감한 태국의 물량부족 ; 그리고, 인도의 쌀 공급제한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상을 제안해온 방글라데시 등의 이유를 밝힘. VFA는 2010년도에 과도한 물량의 쌀을 수출하여, 2011년 초기재고 예상물량이 50만톤에 불과하여, 2011년도에 수출가능한 물량은 약 600만톤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함

나. 베트남과 싱가포르 사이에 때아닌 상표분쟁이 발생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사건의 발단은, 베트남의 대표적 맥주인 SABECO (Saigon Brewery Alcohol Beverage) 가 지역총판인 SAP (Saigon Beer Alcohol Beverage Corporation (Asia Pacific) Pte Ltd) 로부터 2010년 7월 7일자 소인의 2010 Asia Beer Festival 초청장을 받으면서 비롯됨. SABECO의 Nguyen Quang Minh 총괄이사는 SAP가 사용한 회사로고가 SABECO의 회사로고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Nguyen Ba Thi 회장에게 보고함

다. 사건을 보고받은 Nguyen회장은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SATRACO에 사건의 규명 및 종결을 지시함. 간단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동 계약이 SATRACO 및 SAP간의 계약서가 아닌 SABECO를 대리한 계약이며 ; SABECO의 브랜드 사용권이 포함된 계약이며 ; SAP가 총판계약 (2009년 12월) 서명일 1개월전인 2009년 11월에 설립된 회사라는 점 ; 계약서에 따라 SABECO가 아닌 SAP가 총판지역 20개국가에 대하여 브랜드사용권을 5년간 가지고 있다는 점 ; SAP가 이미 브랜드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SABECO가 자사명의로 브랜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오히려 내부거래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자료 : Intellasia, VNN, VCCI, Daily Inquirer 종합)